

201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보고서

2012. 10.

[사] 한국사회경제연구원

목 차

제 1 장 조사 개요

1. 조사의 목적 및 활용방안	3
2. 조사 설계	3
3. 조사 내용	4
4. 응답자 특성	5

제 2 장 조사결과 요약

제 3 장 조사결과 분석

1. 반려동물 사육 실태	21
1.1 반려동물 사육 여부	21
1.2 반려동물 사육 현황	23
2. 동물 등록제에 대한 인식	27
2.1 동물등록제 등록 의향	27
2.2 동물등록제 미등록 이유	29
3.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	31
3.1 길고양이 방사정책에 대한 의견	31
3.2 길고양이 방사정책 반대 이유	33
3.3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의견	35
3.4 유기동물 입양에 반대하는 이유	37
4. 동물고통 최소화에 대한 의견	39
4.1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도덕적 의무에 대한 의견	39
4.2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법제화에 대한 의견	41
5. 동물 학대 및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43
5.1 동물 학대사례 목격 경험	43
5.2 동물 학대사례 목격 후 대처방법	45
5.3 동물보호법 인지 여부	47
5.4 동물학대자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	49

목 차

6. 동물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	51
6.1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 평가	51
6.2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53
6.3 동물보호 정책 추진 필요성	55
6.4 동물보호 정책 불필요 이유	57
7.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인식	59
7.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인지 여부	59
7.2 동물복지축산물 구입 의향	61

부록. 설문지

I

조사 개요



1. 조사의 목적 및 활용방안

- 본 조사는 동물보호 의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하는 현황을 조사하여 동물복지종합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음
- 본 조사결과는 동물복지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한 정책 만족도 및 개선방안을 제고 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국내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육·관리 현황을 토대로 국민들의 동물보호 의식수준과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음. 또한 결과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조사 설계

구 분	조사 내용
① 모 집 단	▪ 전국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¹⁾
②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와 전문면접원을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telephone interview)
③ 표본추출	▪ 지역/성/연령에 따른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
④ 표본크기	▪ 2,000명
수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 $\pm 2.2\%p$
⑥ 조사기간	▪ 2012년 9월 10일 ~ 2012년 9월 23일
⑦ 조사기관	▪ (사)한국사회경제연구원

1) 50,734,284명(2011년 기준 전국 주민등록 인구수, 통계청)



3. 조사 내용

구 분	조사 내용
반려동물 사육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 사육 여부 - 반려동물 사육 현황
동물 등록제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등록제 등록 의향 - 동물등록제 미등록 이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고양이 방사정책에 대한 의견 - 길고양이 방사정책 반대 이유 -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의견 - 유기동물 입양에 반대하는 이유
동물고통 최소화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도덕적 의무에 대한 의견 -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법제화에 대한 의견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학대사례 목격 경험 - 동물 학대사례 목격 후 대처방법 - 동물보호법 인지 여부 - 동물학대자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
동물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 평가 -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동물보호 정책 추진 필요성 - 동물보호 정책 불필요 이유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인지 여부 - 동물복지축산물 구입 의향



4. 응답자 특성

구 분		사 례 수(명)	비 율(%)
[전 체]		2,000	100.0
◎성별	남자	899	45.0
	여자	1,101	55.1
◎연령	19~29세	457	22.9
	30대	431	21.6
	40대	409	20.5
	50대	332	16.6
	60대 이상	371	18.6
◎거주지역	서울	437	21.9
	인천/경기	548	27.4
	대전/충청	205	10.3
	광주/전라	175	8.8
	대구/경북	208	10.4
	부산/울산/경남	319	16.0
	강원	82	4.1
	제주	26	1.3
◎직업	농/임/수산/광업	40	2.0
	자영업	280	14.0
	블루칼라	33	1.7
	화이트칼라	757	37.9
	전업주부	394	19.7
	학생	274	13.7
	무직/기타	208	10.4
	모름/무응답	14	0.7
◎주택형태	단독주택	486	24.3
	아파트	1,174	58.7
	다세대/빌라/기타	307	15.4
	모름/무응답	33	1.7
◎평균소득	200만원 이하	840	42.0
	201~300만원	520	26.0
	301~400만원	296	14.8
	401~500만원	126	6.3
	501만원 이상	83	4.2
	모름/무응답	135	6.8
◎가정분류	1인 세대	222	11.1
	1세대 세대	388	19.4
	2세대 세대	1,236	61.8
	3세대 세대	115	5.8
	모름/무응답	3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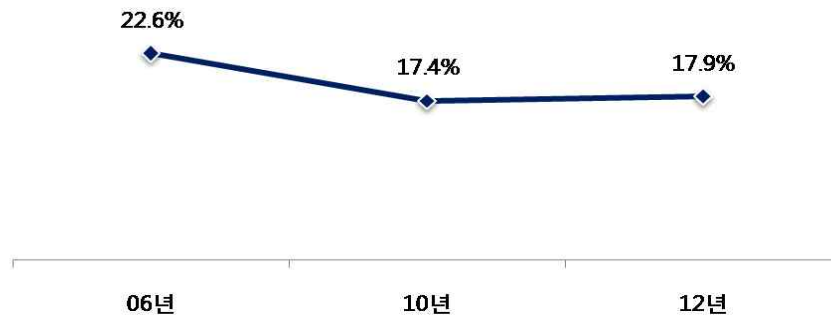
II

조사결과 요약

1. 반려동물²⁾ 사육 실태

1.1 반려동물 사육 여부

- 현재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가정은 17.9%로 나타나 2010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음. 이를 토대로 보면 전국의 반려동물 사육 가정 수를 약 359만 세대로 추산됨
- 반려동물 사육 비율 상승은 고령화, 핵가족화, 출산기피현상 등 외로움을 애완동물로 대체하려는 사회적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며, 사육 비율은 여자(20.3%)가 남자(14.9%)보다 많았음



1.2 반려동물 사육 현황

- 개를 기르고 있는 응답자들은 평균 1.38마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6년 조사 이후 꾸준히 감소한 수치임. 이는 반려동물로 개 이외에 선택의 폭이 좁던 과거와 달리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의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개보다는 다양한 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기르고 있는 고양이들의 평균 마리수는 2010년에 비해 줄어든 1.70마리로 나타났다. 고양이를 사육하는 가정 수는 늘었으나 평균 마리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2마리를 기르고 있는 비율이 크게 늘었으나 3마리 이상 기르고 있는 가정이 2010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이며, 고양이의 경우 많은 수의 사육보다 소수를 사육하는 경향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2) 본 조사에서는 반려동물을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였음

-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정 내 반려동물 수를 추산한 결과 개는 약 440만 마리, 고양이는 약 116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는 약 22만 마리가 감소하였고, 고양이는 약 53만 마리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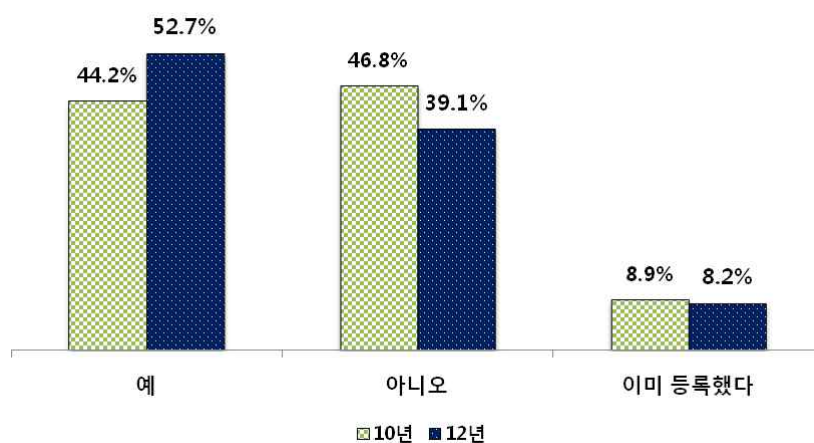
[가정 내 반려동물 수 추산]

	개			고양이			전 체
	06년	10년	12년	06년	10년	12년	
가구수(천가구)	17,858	19,261	20,033	17,858	19,261	20,033	20,033
사육비율(%)	22.1	16.3	16.0	1.4	1.7	3.4	17.9
평균 마리수(마리)	1.66	1.47	1.38	1.91	1.92	1.70	1.55
총 사육 동물수(마리)	6,551,206	4,615,198	4,397,275	477,510	628,689	1,158,932	5,556,207



2. 동물 등록제에 대한 인식

- 현재 가정에서 개를 기르고 있는 응답자의 과반수는 동물등록제에 등록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52.7%). 한편, 동물등록제에 이미 등록한 응답자는 2010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경향을 보였음(▼0.7%p). 이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등록 의향이나 등록한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여성 비율이 점차 증가한데 따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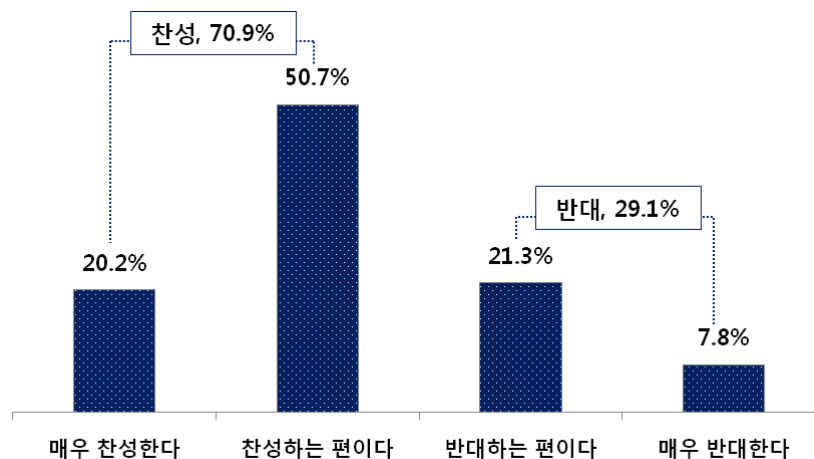


- 동물등록제를 기피하는 이유로 개를 기르는 것이 시민의 자유라는 의견은 여자(44.2%)가 많이 내세웠으며, 등록의 귀찮음을 많이 개진한 응답자들은 남자(30.0%)들이 많았음

3.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

3.1 길고양이 방사정책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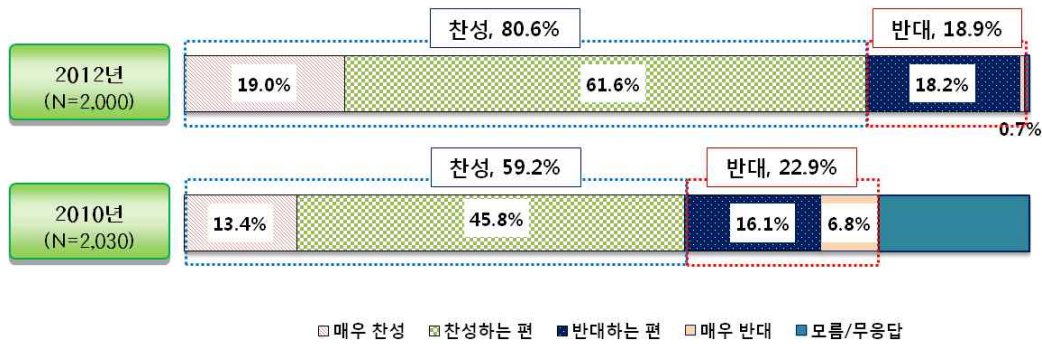
- 길고양이를 중성화 후 방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응답자가 10명 중 7명꼴로 나타났음(70.9%). 이들은 대부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방사정책에 대해 찬성한 비율이 많았음



- 길고양이 방사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자는 ‘중성화 수술은 동물학대이므로 반대’(52.2%)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제기하였음

3.2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의견

- 반려동물을 새로 기르려고 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80.6%)
- 이러한 결과는 201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21.4%p), 비교적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음. 이는 연령이 어릴수록 대중매체나 홍보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들이 유기동물에 대한 연예인들의 활발한 캠페인 활동이나 매스컴을 많이 접한데 따른 인식의 변화라고 추리되며, 유기동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산을 위해 매스컴을 통한 홍보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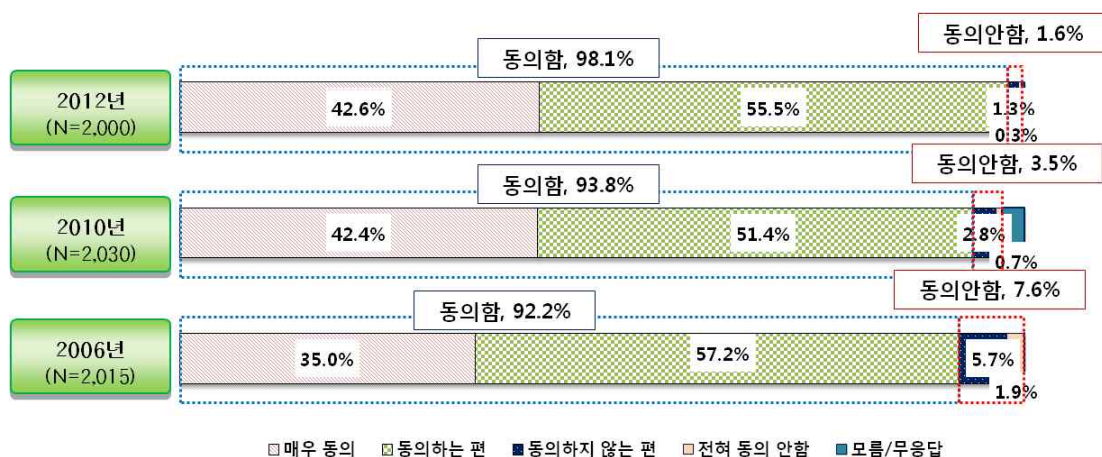
- 유기동물 입양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의 가장 큰 이유로 ‘더러울 것 같음’(31.9%)을 꼽았음. 2010년에는 가장 큰 이유로 ‘질병에 걸려 있을 것 같음’으로 질병에 대한 걱정이 많았으나 본 조사 결과에서는 질병보다는 더러움에 대한 의견이 유기동물 입양 반대를 주도하고 있었음



4. 동물고통 최소화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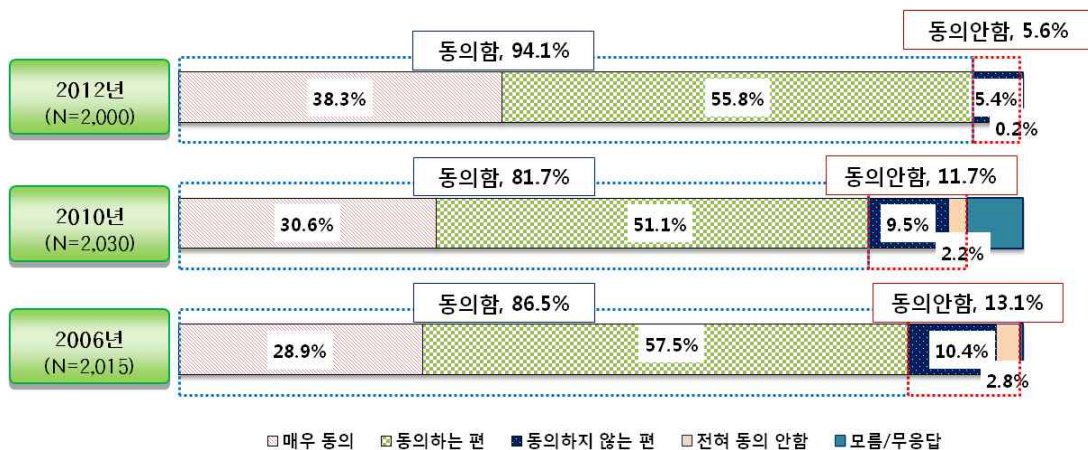
4.1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도덕적 의무에 대한 의견

-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인 98.1%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답변이 2006년 조사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동물에 대한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됨



4.2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법제화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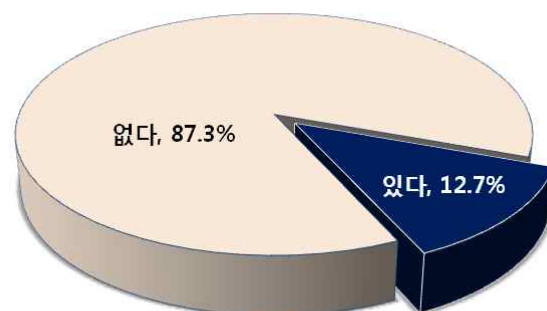
□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법제화에 대해서도 매우 많은 응답자(94.1%)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0년에 비해 긍정적인 성향을 띠는 응답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도덕적 의무(98.1%)보다는 다소 낮은 응답 결과를 보였음. 이는 도덕적으로는 동물에 대해 의무감을 가지고 있으나 규정으로 정해 지켜야 할 만큼 책임감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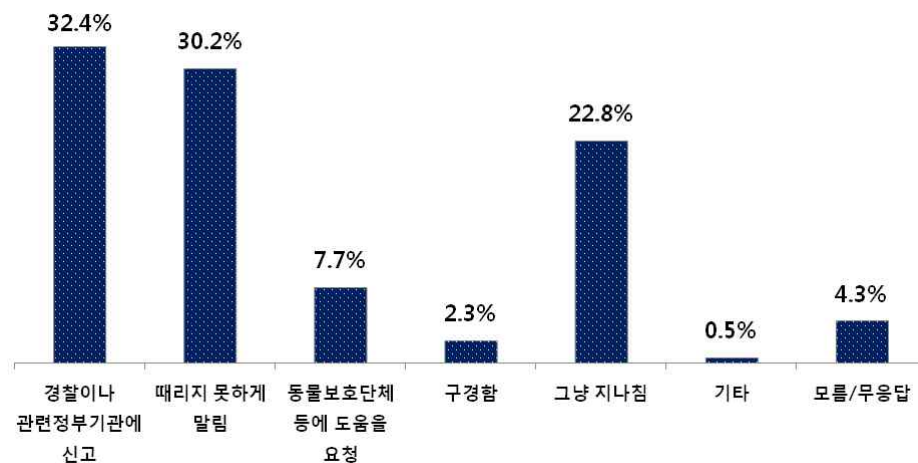
5. 동물 학대 및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5.1 동물 학대사례 목격 경험

□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를 목격한 응답자는 전체의 12.7%로 나타나 동물에 대한 학대가 다소 목격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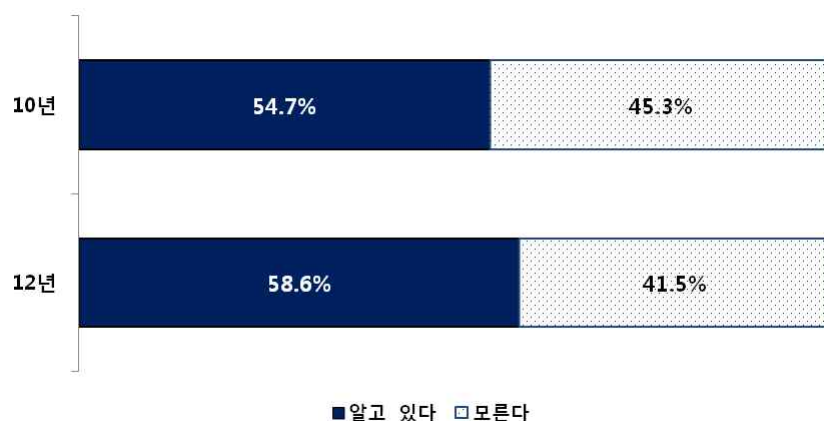


- 동물 학대사례를 목격하거나 목격하였을 경우 응답자들은 대처 방법으로 ‘경찰이나 관련 정부기관에 신고’(32.4%)또는 ‘때리지 못하게 말림’(30.2%)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응답자들은 비사육자보다 학대사례 목격 후 경찰 신고, 못하게 말림 등 대처방법에 있어 비사육자보다 적극적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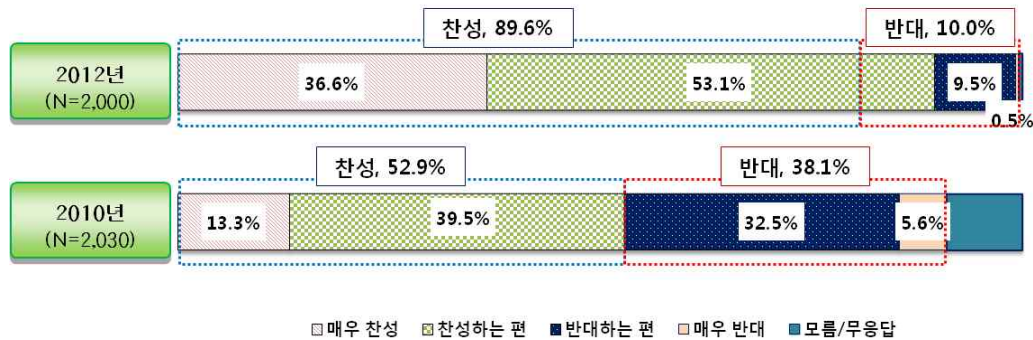
5.2 동물보호법 인지 여부

-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58.6%가 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임(▲3.9%p)
-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 중이나 60% 미만의 다소 저조한 수준이므로 홍보 강화 등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5.3 동물학대자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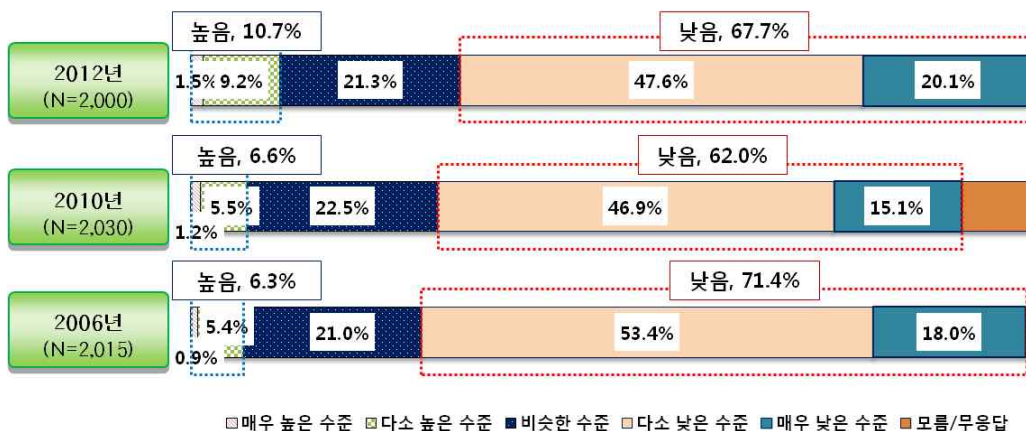
-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해 응답자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89.6%)이 대다수였음. 2010년에는 긍정적인 의견이 52.8%에 불과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비율이 89.6%로 높게 나타나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동물보호법에 대한 시선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사료됨



6. 동물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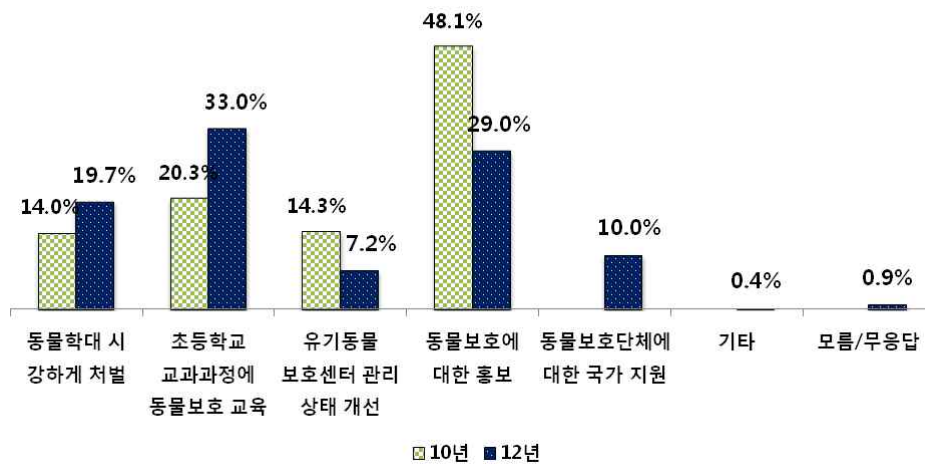
6.1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 평가

-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에 대해 평가한 결과 응답자들의 67.7%가 낮은 수준으로 여기고 있었음. 동물보호 수준에 대해서는 2010년(낮은 수준 62%)에 비해 낮게 평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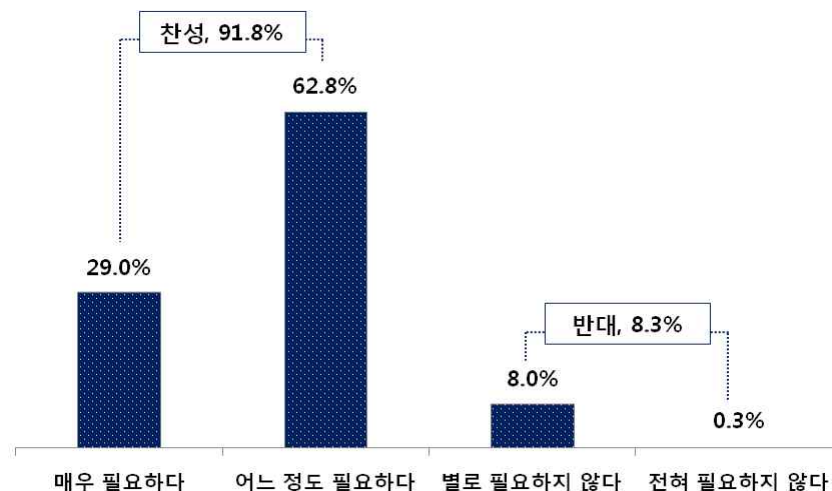
6.2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우선순위로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동물보호 교육’(33.0%)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29.0%)나 ‘동물학대 시 강하게 처벌’(19.7%)에 대한 목소리도 많았음
- 비교적 고연령층은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교과과정의 교육(36.9%)이나 홍보(38.6%)를 많이 선호한데 반해 저연령층은 강한 처벌(27.6%)을 크게 선호함



6.3 동물보호 정책 추진 필요성

- 동물보호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91.8%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8.3%에 불과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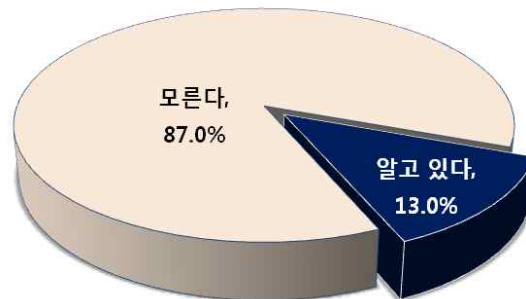
- 동물보호 정책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응답자들(165명)은 ‘정책 추진 비용으로 불쌍한 사람 돕는게 우선’(64.8%)이라는 이유를 가장 크게 제기하였으며, 다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여 문제가 아님’(19.4%)이 응답되었음. 이는 정책 반대자들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개입을 싫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7.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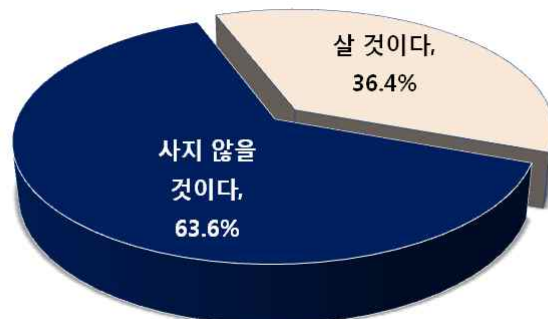
7.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인지 여부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3.0%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인구수로 봤을 때 약 660만명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7.2 동물복지축산물 구입 의향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축산물에 대해서는 10명중 약 3~4명이 살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구입의향은 남녀간의 차이가 뚜렷하였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구입 의향이 높았음



III

조사결과 분석

1. 반려동물 사육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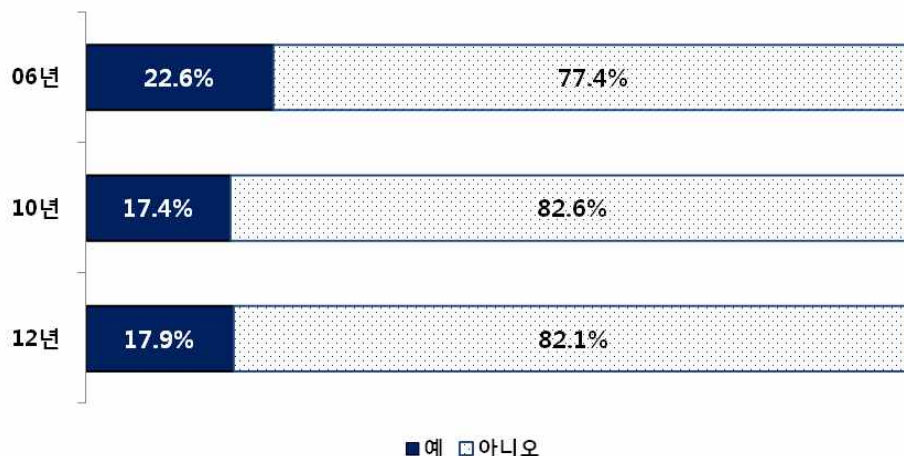
1.1 반려동물 사육 여부(n=2,000)

질문

문1) 현재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계십니까?

- ☐ 현재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가정은 17.9%로 나타나 전국의 반려동물 사육 가정 수는 약 359만 세대로 추산됨³⁾
- ☐ 이는 2010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임(▲0.5%p)
- ☐ 반려동물 사육 비율 상승은 고령화, 핵가족화, 출산기피현상 등 외로움을 애완동물로 대체하려는 사회적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짐

반려동물 사육 여부



[반려동물 사육 비율]

(단위 : %)	예	아니오
2006년	22.6	77.4
2010년(A)	17.4	82.6
2012년(B)	17.9	82.2
Gap(B-A)	0.5	-0.4

3) 20,033,142세대(2011년 기준 전국 주민등록 세대수, 통계청) X 17.9%

- 반려동물 사육 비율은 2010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7대 광역시에서 반려동물 사육 비율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도시(17.1%)보다는 농촌(25.6%)에서 반려동물을 많이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27.0%)과 대전/충청(21.2%) 지역의 사육비율이 다소 높았음

[지역별 반려동물 사육 비율]

(단위 : %)	사례수	2006년	2010년(A)	2012년(B)	Gap(B-A)
수도권	985	21.5	19.7	21.7	2.0
7대 광역시	952	20.8	16.8	20.1	3.3
도시	1,824	20.7	16.6	17.1	0.5
농촌	176	42.4	24.9	25.6	0.7
서울	437	22.9	20.1	27.0	6.9
인천/경기	548	20.3	19.1	9.7	-9.4
대전/충청	205	25.9	14.1	21.2	7.1
광주/전라	175	27.4	20.5	11.7	-8.8
대구/경북	208	23.3	14.1	17.0	2.9
부산/울산/경남	319	19.1	12.1	15.6	3.5
강원	82	27.2	20.9	14.0	-6.9
제주	26		13.6	19.0	5.4

- 반려동물은 여자(20.3%)가 남자(14.9%)보다 많이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아파트(14.3%)에 비해 단독주택에서 사육 비율이 특히 높았음(24.1%). 이는 공동주택의 경우 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제약이 따르거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응답자특성별 반려동물 사육 비율]

(단위 : %)		사례수	예	아니오
성별	남자	899	14.9	85.1
	여자	1,101	20.3	79.7
주택형태	단독주택	486	24.1	75.9
	아파트	1,174	14.3	85.7
	다세대/빌라/기타	307	21.2	78.8
	모름/무응답	33	21.2	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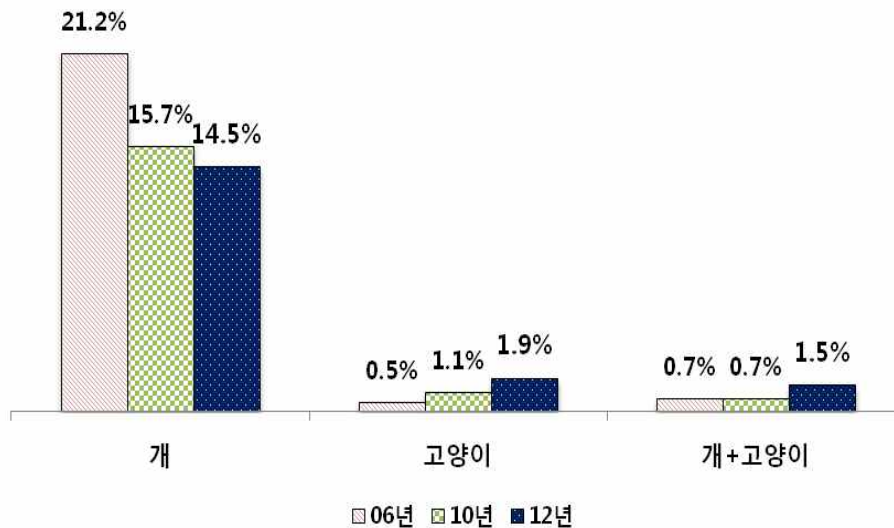
1.2 반려동물 사육 현황⁴⁾(n=357)

질문

문2) (문1에서 1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그럼, 개와 고양이 중 어느 것을 기르고 있습니까? (응답된 각각에 대하여) 몇 마리나 기르고 계십니까?

- ☐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응답자는 17.9%로 나타났으며, 이 중 단연 개를 기르는 비중이 많았음(14.5%)
- ☐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비율은 1.9%였으며, 개와 고양이를 모두 기르고 있는 응답자는 1.5%로 나타남
- ☐ 전반적으로 개만 기르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고양이만 기르거나 개와 고양이 모두 기르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고양이를 기르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반려동물 사육 현황



[반려동물 사육 현황]

(단위 : %)	개	고양이	개+고양이
2006년	21.2	0.5	0.7
2010년(A)	15.7	1.1	0.7
2012년(B)	14.5	1.9	1.5
Gap(B-A)	-1.2	0.8	0.8

4) 각 사육현황은 전체 사육자 기준으로 개와 고양이 각각의 사육 비율을 전체 기준으로 환산하였음

- 개 사육 현황은 1~2마리를 기르는 비율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3마리 이상 기르는 비율이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 기존 개를 사육하던 방식이 아닌 반려동물로서 소수의 개를 사육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개를 기르고 있는 응답자들은 평균 1.38마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6년 조사 이후 꾸준히 감소한 수치임. 이는 반려동물로 개 이외에 선택의 폭이 좁던 과거와 달리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사육할 수 있는 동물의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개보다는 다양한 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환경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반려동물 사육 현황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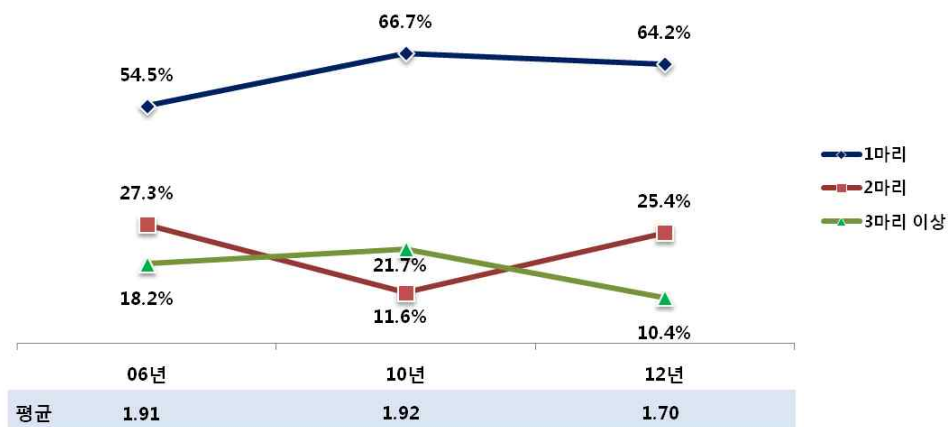


[반려동물 사육 현황 - 개]

(단위 : %)	1마리	2마리	3마리 이상	평균(마리)
2006년	67.9	18.0	14.1	1.66
2010년(A)	75.6	15.8	8.3	1.47
2012년(B)	75.9	17.6	6.6	1.38
Gap(B-A)	0.3	1.8	-1.7	-0.09

- 고양이 사육 현황은 1마리나 3마리 이상은 줄어들었으나 2마리를 기르는 비율이 크게 늘었음
- 반면, 기르고 있는 고양이들의 평균 마리수는 2010년에 비해 줄어든 1.70마리로 나타났음. 이는 2마리를 기르고 있는 비율이 크게 늘었으나 3마리 이상 기르고 있는 가정이 2010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데 따른 이유가 있으며, 고양이의 경우 대부분 많은 수를 사육하기보다 소수를 사육하는 경향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반려동물 사육 현황 - 고양이



[반려동물 사육 현황 - 고양이]

(단위 : %)	1마리	2마리	3마리 이상	평균(마리)
2006년	54.5	27.3	18.2	1.91
2010년(A)	66.7	11.6	21.7	1.92
2012년(B)	64.2	25.4	10.4	1.70
Gap(B-A)	-2.5	13.8	-11.3	-0.22

□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정 내 반려동물 수를 추산한 결과 개는 약 440만 마리, 고양이는 약 116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개는 약 22만 마리가 감소하였고, 고양이는 약 53만 마리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가정 내 반려동물 수 추산⁵⁾]

	개			고양이			전체
	06년	10년	12년	06년	10년	12년	
가구수(천가구)	17,858	19,261	20,033	17,858	19,261	20,033	20,033
사육비율(%)	22.1	16.3	16.0	1.4	1.7	3.4	17.9
평균 마리수(마리)	1.66	1.47	1.38	1.91	1.92	1.70	1.55
총 사육 동물수(마리)	6,551,206	4,615,198	4,397,275	477,510	628,689	1,158,932	5,556,207

□ 지역별로 사육하는 반려동물 수에 대해 살펴보면 개는 서울(약 132만 마리), 고양이는 경기도(약 25만 마리)에서 많이 길러지고 있을 것으로 추산됨

[지역별 가정 내 반려동물 수 추산⁶⁾]

	가구 수 (천가구)	개			고양이			전체		
		사육비율 (%)	평균 마리수 (마리)	총 사육 동물수 (천마리)	사육 비율 (%)	평균 마리수 (마리)	총 사육 동물수 (천마리)	사육비율 (%)	평균 마리수 (마리)	총 사육 동물수 (천마리)
수도권	9,850	19.4	1.31	2,510	3.8	1.35	500	21.7	1.41	3,010
7대 광역시	9,120	18.2	1.25	2,079	3.6	1.35	441	20.1	1.38	2,520
서울	4,193	24.7	1.28	1,314	3.7	1.38	208	27.0	1.36	1,522
부산	1,381	9.0	1.15	142	1.4	1.50	29	9.7	1.29	171
대구	941	20.2	1.20	226	3.0	1.33	37	21.2	1.33	263
인천	1,078	9.0	1.00	96	3.6	1.00	38	11.7	1.08	134
광주	549	15.1	1.25	103	1.9	1.00	10	17.0	1.22	113
대전	566	15.6	1.40	123	7.8	1.80	79	15.6	2.30	202
울산	413	9.3	1.50	58	7.0	1.00	29	14.0	1.50	87
경기	4,579	16.7	1.41	1,071	3.9	1.41	248	19.0	1.53	1,319
강원	649	8.5	2.14	118	3.7	1.67	39	11.0	2.22	157
충북	627	11.5	1.86	133	8.2	2.00	101	14.8	2.33	234
충남	869	13.8	1.91	226	2.5	1.50	32	16.3	1.85	258
전북	754	14.3	2.14	229	2.0	5.00	76	14.3	2.86	305
전남	805	9.6	1.71	131	2.7	3.50	76	11.0	2.38	207
경북	1,115	16.5	1.39	254	0.9	7.00	71	16.5	1.78	325
경남	1,287	9.9	1.08	137	2.3	3.00	87	12.2	1.44	224
제주	228	11.5	1.33	35	0.0	0.00	0	11.5	1.33	35

5) 총 사육 동물 수는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수치이므로, 실제 집계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

총 사육 동물 수 = 가구수 X 사육비율 X 평균 마리수

‘개+고양이’ 둘 다 기르는 경우는 각각의 비율에 중복 포함하였음.

6) 고양이 추산 결과는 표본수가 적으므로(n<30) 해석상에 주의를 요함함.

2. 동물 등록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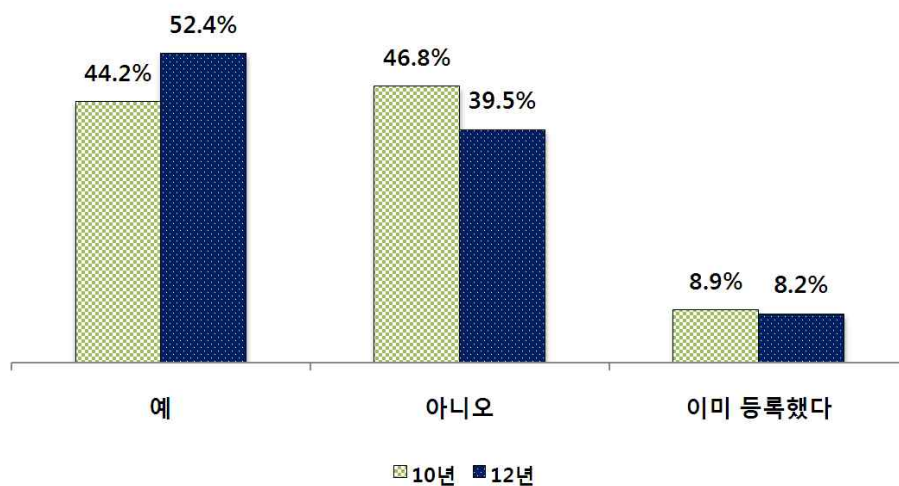
2.1 동물등록제 등록 의향(n=319)

질문

문3) (문2에서 ①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가정에서 기르는 개는 국가에 등록하여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동물등록제’가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귀하께서는 현재 기르는 개를 등록하시겠습니까?

- ☐ 현재 가정에서 개를 기르고 있는 응답자의 과반수는 동물등록제에 등록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52.4%)
- ☐ 한편, 동물등록제에 이미 등록한 응답자는 2010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경향을 보였음(▼0.7%p). 이는 동물등록제를 남성보다 여성이 기피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사육 비율이 높은 여성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됨

동물등록제 등록 의향



[동물등록제 등록 의향]

(단위 : %)	예	아니오	이미 등록했다	등록 의향 (예 + 이미 등록)	등록 의향 없음
2010년(A)	44.2	46.8	8.9	53.2	46.8
2012년(B)	52.4	39.5	8.2	60.5	39.5
Gap(B-A)	8.2	-7.3	-0.7	7.3	-7.3

- 동물등록제 등록 의향은 수도권은 53.4%, 7대 광역시는 62.4%로 나타나 과반수가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도시보다 농촌에서 등록 의향이 많았음

[지역별 동물등록제 등록 의향]

(단위 : %)	사례수	등록 의향 있음 (예 + 이미 등록)	등록 의향 없음
수도권	191	53.4	46.6
7대 광역시	173	62.4	37.6
도시	278	60.1	39.9
농촌	41	63.4	36.6
서울	108	52.8	47.2
부산	13	84.6	15.4
대구	20	90.0	10.0
인천	10	70.0	30.0
광주	8	62.5	37.5
대전	10	70.0	30.0
울산	4	75.0	25.0
경기	73	52.1	47.9
강원	7	71.4	28.6
충북	7	71.4	28.6
충남	11	45.5	54.5
전북	7	42.9	57.1
전남	7	42.9	57.1
경북	18	83.3	16.7
경남	13	76.9	23.1
제주	3	33.3	66.7

- 동물등록제에 등록할 의향은 여자보다 특히 남자(66.9%)가 많았으며, 사육비율이 높은 단독주택 거주자(65.7%)에서 많이 나타났음

[응답자특성별 동물등록제 등록 의향]

(단위 : %)		사례수	예	아니오	이미 등록했다	등록 의향 있음 (예 + 이미 등록)	등록 의향 없음
성별	남자	121	57.0	33.1	9.9	66.9	33.1
	여자	198	49.5	43.4	7.1	56.6	43.4
주택형태	단독주택	108	61.1	34.3	4.6	65.7	34.3
	아파트	149	49.7	41.6	8.7	58.4	41.6
	다세대/빌라/기타	58	43.1	44.8	12.1	55.2	44.8
	모름/무응답	4	50.0	25.0	25.0	75.0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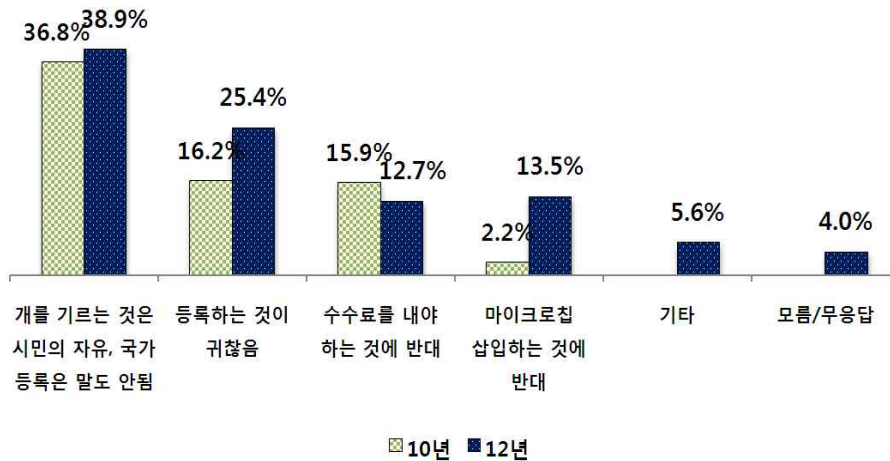
2.2 동물등록제 미등록 이유(n=126)

질 문

문4) (문3에서 2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등록을 안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동물등록제에 등록을 안하겠다는 응답자(126명)들은 등록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개를 기르는 것은 시민의 자유, 국가 등록은 말도 안됨’(37.9%)으로 응답하였음. 다음으로 ‘등록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응답자가 많았음(25.8%)
- 기타(5.6%)의견으로는 ‘묶어 놓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아 필요없다’(3명),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시행할 필요없다’(2명), ‘금방 늙어 죽기 때문에 필요없다’(1명) 등이 있었음

동물등록제 미등록 이유



[동물등록제 미등록 이유]

(단위 : %)	개 사육은 시민의 자유	등록하는 것이 귀찮음	수수료 반대	마이크로칩 삽입 반대	기타	모름/무응답
2010년(A)	36.8	16.2	15.9	2.2	-	-
2012년(B)	38.9	25.4	12.7	13.5	5.6	4
Gap(B-A)	2.1	9.2	-3.2	11.3		

-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난 ‘개를 기르는 것은 시민의 자유’라는 응답은 수도권이 40.4%로 다소 높았으며, 7대 광역시도 49.2%로 매우 많은 응답이 있었음

[지역별 동물등록제 미등록 이유]

(단위 : %)	사례수	개 사육은 시민의 자유	등록하는 것이 귀찮음	수수료 반대	마이크로칩 삽입 반대	기타	모름/무응답
수도권	89	40.4	24.7	15.7	13.5	3.4	2.2
7대 광역시	65	49.2	23.1	10.8	12.3	1.5	3.1
서울	51	54.9	19.6	13.7	9.8	2.0	0.0
부산	2	0.0	50.0	0.0	50.0	0.0	0.0
대구	2	0.0	50.0	0.0	0.0	0.0	50.0
인천	3	66.7	0.0	0.0	0.0	0.0	33.3
광주	3	66.7	0.0	0.0	33.3	0.0	0.0
대전	3	0.0	100.0	0.0	0.0	0.0	0.0
울산	1	0.0	0.0	0.0	100.0	0.0	0.0
경기	35	17.1	34.3	20.0	20.0	5.7	2.9
강원	2	100.0	0.0	0.0	0.0	0.0	0.0
충북	2	0.0	100.0	0.0	0.0	0.0	0.0
충남	6	16.7	33.3	0.0	16.7	33.3	0.0
전북	4	75.0	0.0	0.0	0.0	25.0	0.0
전남	4	25.0	0.0	0.0	0.0	25.0	50.0
경북	3	66.7	0.0	0.0	33.3	0.0	0.0
경남	3	33.3	0.0	66.7	0.0	0.0	0.0
제주	2	50.0	50.0	0.0	0.0	0.0	0.0

- 개를 기르는 것이 시민의 자유라는 응답자는 여자(44.2%)가 많았으며, 등록의 귀찮음으로 인한 응답은 남자(30.0%)가 많았음
- 평균소득 201~300만원(52.2%)에서는 시민의 자유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수수료 반대에 대한 의견은 200만원 이하(20.3%)에서 많았음
- 동물등록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등록 권유 방식을 남녀간에 다르게 적용하여 홍보하는 등에 맞춤형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응답자특성별 동물등록제 미등록 이유]

	(단위 : %)	사례수	개 사육은 시민의 자유	등록하는 것이 귀찮음	수수료 반대	마이크로칩 삽입 반대	기타	모름/무응답
성별	남자	40	27.5	30.0	12.5	17.5	7.5	5.0
	여자	86	44.2	23.3	12.8	11.6	4.7	3.5
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59	40.7	23.7	20.3	10.2	1.7	3.4
	201~300만원	23	52.2	26.1	8.7	4.3	8.7	0.0
	301~400만원	24	20.8	33.3	4.2	29.2	8.3	4.2
	401~500만원	7	42.9	14.3	14.3	28.6	0.0	0.0
	501만원 이상	7	42.9	28.6	0.0	14.3	0.0	14.3
	모름/무응답	6	33.3	16.7	0.0	0.0	33.3	16.7

3.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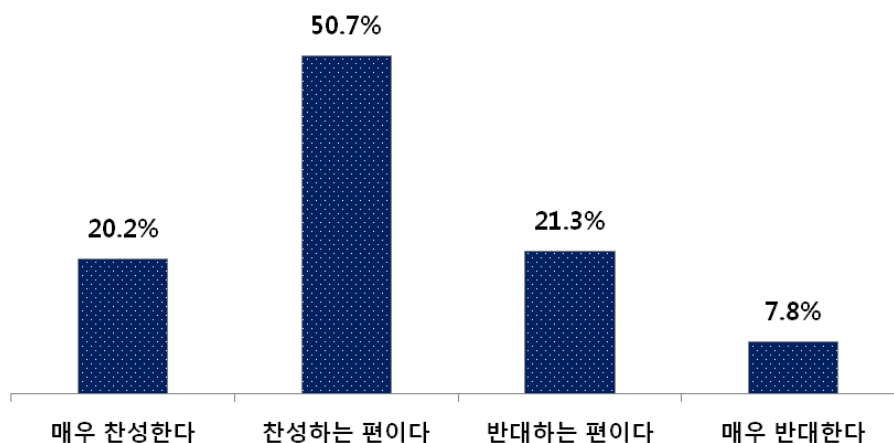
3.1 길고양이 방사정책에 대한 의견(n=357)

질문

문5) (문1에서 1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2011년 유기 고양이는 4만두 정도되며 이 중 대부분은 길고양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경우 개체조절을 위하여 중성화 후 방사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수술 후 방사하는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길고양이를 중성화 후 방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70.9%(매우 찬성 20.2% + 찬성하는 편 50.7%)로 나타나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찬성하였음
- ☐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방사정책에 대해 찬성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음

길고양이 방사정책에 대한 의견



[길고양이 방사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 %)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종합평가	
					찬성	반대
2012년 본조사	20.2	50.7	21.3	7.8	70.9	29.1

□ 길고양이 방사정책에 대해 수도권(66.4%)과 7대 광역시(64.9%)의 찬성 비율은 전체 응답자 비율(70.9%)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 길고양이 방사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 %)	사례수	찬성	반대
수도권	214	66.4	33.6
7대 광역시	191	64.9	35.1
도시	312	72.1	27.9
농촌	45	62.2	37.8
서울	118	61.0	39.0
부산	14	78.6	21.4
대구	21	71.4	28.6
인천	13	61.5	38.5
광주	9	55.6	44.4
대전	10	70.0	30.0
울산	6	100.0	0.0
경기	83	74.7	25.3
강원	9	88.9	11.1
충북	9	77.8	22.2
충남	13	69.2	30.8
전북	7	71.4	28.6
전남	8	75.0	25.0
경북	18	83.3	16.7
경남	16	87.5	12.5
제주	3	100.0	0.0

□ 길고양이 방사정책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단독주택 거주자(74.4%)에서 많았으며,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이는 단독주택 거주자와 고소득층에서 반려동물 사육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응답자특성별 길고양이 방사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 %)		사례수	매우 찬성한다	찬성하는 편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매우 반대한다	종합평가	
							찬성	반대
주택 형태	단독주택	117	17.1	57.3	17.1	8.5	74.4	25.6
	아파트	168	20.8	51.2	23.2	4.8	72.0	28.0
	다세대/빌라/기타	65	23.1	43.1	20.0	13.8	66.2	33.8
	모름/무응답	7	28.6	0.0	57.1	14.3	28.6	71.4
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147	16.3	49.0	24.5	10.2	65.3	34.7
	201~300만원	76	17.1	52.6	23.7	6.6	69.7	30.3
	301~400만원	64	26.6	51.6	17.2	4.7	78.1	21.9
	401~500만원	23	26.1	52.2	17.4	4.3	78.3	21.7
	501만원 이상	24	29.2	54.2	8.3	8.3	83.3	16.7
	모름/무응답	23	21.7	47.8	21.7	8.7	69.6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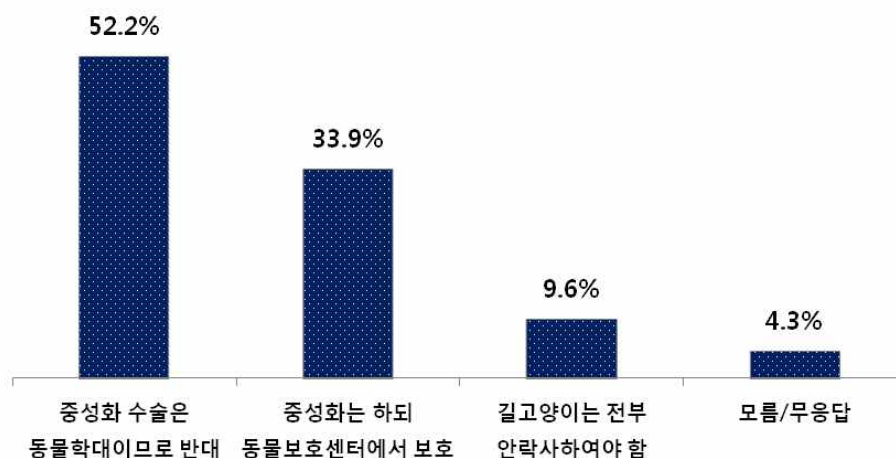
3.2 길고양이 방사정책 반대 이유(n=115)

질 문

문6) (문5에서 3,4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길고양이 방사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자(115명)는 ‘중성화 수술은 동물학대이므로 반대’(52.2%)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제기하였음. 다음으로 ‘중성화는 하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33.9%)라는 의견도 많았음

길고양이 방사정책 반대 이유



[길고양이 방사정책 반대 이유]

(단위 : %)	중성화 수술은 동물학대	중성화는 하되 동물보호센터 보호	길고양이는 전부 안락사	모름/무응답
2012년 본조사	52.2	33.9	9.6	4.3

- 동물학대로 인해 반대한다는 의견은 수도권 지역이 56.6%로 전체 비율보다 다소 높았으며, 농촌에서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음

[지역별 길고양이 방사정책 반대 이유]

(단위 : %)	사례수	중성화 수술은 동물학대	중성화는 하되 동물보호센터보호	길고양이는 전부 안락사	모름/무응답
수도권	76	56.6	31.6	9.2	2.6
7대 광역시	76	50.0	36.8	9.2	3.9
도시	97	48.5	37.1	10.3	4.1
농촌	18	72.2	16.7	5.6	5.6
서울	48	56.3	33.3	8.3	2.1
부산	3	33.3	66.7	0.0	0.0
대구	6	50.0	50.0	0.0	0.0
인천	5	80.0	20.0	0.0	0.0
광주	4	0.0	50.0	0.0	50.0
대전	10	30.0	40.0	30.0	0.0
경기	23	52.2	30.4	13.0	4.3
강원	1	0.0	100.0	0.0	0.0
충북	2	100.0	0.0	0.0	0.0
충남	4	25.0	25.0	25.0	25.0
전북	2	100.0	0.0	0.0	0.0
전남	2	100.0	0.0	0.0	0.0
경북	3	66.7	33.3	0.0	0.0
경남	2	50.0	50.0	0.0	0.0

- 동물학대를 이유로 꼽은 응답자들은 젊은 층인 20대(60.7%)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다세대/주택/빌라 거주자(59.1%)들도 많았음
-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50대는 중성화는 하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음

[응답자특성별 길고양이 방사정책 반대 이유]

	(단위 : %)	사례수	중성화 수술은 동물학대	중성화는 하되 동물보호센터보호	길고양이는 전부 안락사	모름/무응답
연령	19~29세	28	60.7	28.6	10.7	0.0
	30대	18	50.0	38.9	0.0	11.1
	40대	17	52.9	29.4	17.6	0.0
	50대	22	36.4	40.9	13.6	9.1
	60대 이상	30	56.7	33.3	6.7	3.3
주택형태	단독주택	32	53.1	43.8	0.0	3.1
	아파트	56	51.8	30.4	14.3	3.6
	다세대/빌라/기타	22	59.1	27.3	9.1	4.5
	모름/무응답	5	20.0	40.0	20.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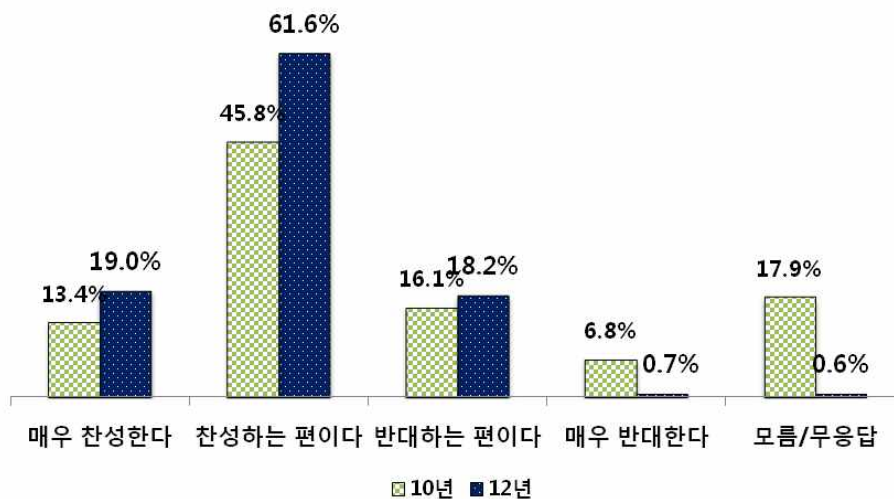
3.3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의견(n=2,000)

질문

문7) 새로 반려동물을 기를 때 업소에서 구입하지 않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반려동물을 새로 기르려고 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80.6%)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매우 찬성 19.0% + 찬성하는 편 61.6%)
- 201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21.4%p), 비교적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음. 이는 연령이 어릴수록 대중매체나 홍보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들이 유기동물에 대한 연예인들의 활발한 캠페인 활동이나 매스컴을 많이 접한데 따른 인식의 변화라고 추리되며, 유기동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산을 위해 매스컴을 통한 홍보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함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의견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의견]

(단위 : %)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모름/무응답	종합평가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2010년(A)	13.4	45.8	16.1	6.8	17.9	59.2	22.9	17.9
2012년(B)	19	61.6	18.2	0.7	0.6	80.6	18.9	0.6
Gap(B-A)	5.6	15.8	2.1	-6.1	-17.3	21.4	-4	-17.3

- 유기동물 입양 찬성에 대해서는 수도권(82.4%)이 다소 높은 찬성 의견을 보였으며, 농촌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반대가 강하게 나타났음

[지역별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의견]

(단위 : %)	사 례 수	찬 성	반 대	모름/무응답
수도권	985	82.4	17.3	0.3
7대 광역시	952	81.8	17.5	0.6
도시	1,824	83.7	16.0	0.4
농촌	176	48.9	48.9	2.3
서울	437	79.2	20.6	0.2
부산	145	86.2	13.8	0.0
대구	99	83.8	16.2	0.0
인천	111	81.1	18.9	0.0
광주	53	79.2	20.8	0.0
대전	64	84.4	7.8	7.8
울산	43	90.7	9.3	0.0
경기	437	86.0	13.5	0.5
강원	82	68.3	30.5	1.2
충북	61	65.6	34.4	0.0
충남	80	76.3	21.3	2.5
전북	49	55.1	44.9	0.0
전남	73	78.1	21.9	0.0
경북	109	83.5	16.5	0.0
경남	131	76.3	23.7	0.0
제주	26	96.2	3.8	0.0

-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응답자들은 찬성 비율이 90.5%로 매우 높았음

[사육여부별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의견]

(단위 : %)	사 례 수	찬 성	반 대	모름/무응답
사육	357	90.5	8.1	1.4
비사육	1643	78.5	21.2	0.4

-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 많이 나타나고 있음

[응답자특성별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의견]

(단위 : %)		사 례 수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모름/무응답	종합평가		
								찬성	반대	모름/무응답
연령	19~29세	457	26.3	65.6	7.0	0.9	0.2	91.9	7.9	0.2
	30대	431	17.9	65.7	15.3	1.2	0.0	83.5	16.5	0.0
	40대	409	19.8	59.4	19.8	0.7	0.2	79.2	20.5	0.2
	50대	332	14.2	63.0	21.1	0.0	1.8	77.1	21.1	1.8
	60대 이상	371	14.8	53.1	31.0	0.3	0.8	67.9	31.3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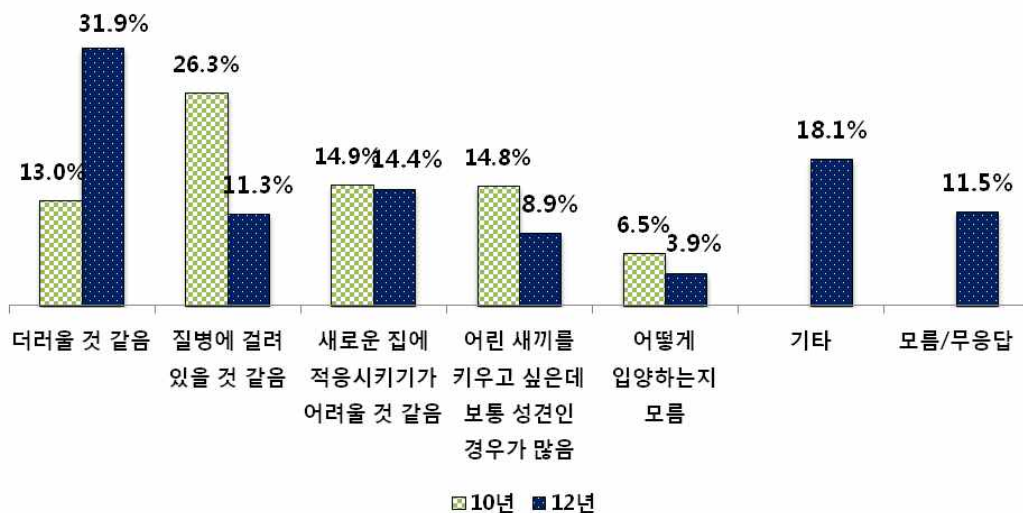
3.4 유기동물 입양에 반대하는 이유(n=382)

질문

문8) (문7에서 3,4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 하나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유기동물 입양에 반대하는 응답자들(382명)은 가장 큰 이유로 ‘더러울 것 같음’(31.9%)을 꼽았음. 2010년에는 가장 큰 이유로 ‘질병에 걸려 있을 것 같음’으로 질병에 대한 걱정이 많았으나 본 조사 결과에서는 질병보다는 더러움에 대한 의견이 유기동물 입양 반대를 주도하고 있었음
- 기타 의견으로 ‘동물을 싫어함’(39명), ‘천식/알레르기 등 건강상 문제’(14명), ‘환경 안됨’(13명), ‘책임감 부족’(3명), ‘정때기 어렵다’(2명), ‘나이가 많아 싫다’(2명), ‘바쁘다’(1명), ‘중립’(1명), ‘번거롭다’(1명), ‘금전적 문제’(1명) 등이 있었음

유기동물 입양에 반대하는 이유



[유기동물 입양에 반대하는 이유]

(단위 : %)	더러울 것 같음	질병에 걸려 있을 것 같음	새로운 집에 적응시키기 어려움	새끼 사육 희망, 성견인 경우 많음	어떻게 입양하는지 모름
2010년(A)	13.0	26.3	14.9	14.8	6.5
2012년(B)	31.9	11.3	14.4	8.9	3.9
Gap(B-A)	18.9	-15.0	-0.5	-5.9	-2.6

□ 더러움으로 인해 입양을 반대하는 지역은 충북(71.4%)에서 특히 많았음

[지역별 유기동물 입양에 반대하는 이유]

(단위 : %)	사 례 수	더 러 울 것 같 음	질 병에 걸 려 있 을 것 같 음	새 로운 집 에 적 응 시 키 기 어 려 움	새 끼 사 육 희 망, 성 견 인 경 우 많 음	어 떻 게 입 양 하 는 지 모 름	기 타	모 름/ 무 응 답
서울	91	28.6	8.8	13.2	17.6	9.9	19.8	2.2
부산	20	20.0	15.0	15.0	15.0	0.0	15.0	20.0
대구	16	37.5	0.0	6.3	6.3	0.0	0.0	50.0
인천	21	4.8	14.3	9.5	4.8	0.0	61.9	4.8
광주	11	45.5	0.0	9.1	9.1	0.0	0.0	36.4
대전	6	16.7	33.3	33.3	0.0	16.7	0.0	0.0
울산	4	25.0	25.0	25.0	0.0	0.0	0.0	25.0
경기	60	25.0	16.7	11.7	11.7	5.0	28.3	1.7
강원	26	30.8	19.2	11.5	0.0	3.8	30.8	3.8
충북	21	71.4	4.8	14.3	9.5	0.0	0.0	0.0
충남	18	16.7	11.1	11.1	5.6	5.6	27.8	22.2
전북	22	18.2	13.6	36.4	0.0	0.0	0.0	31.8
전남	16	37.5	0.0	25.0	6.3	0.0	31.3	0.0
경북	18	50.0	11.1	11.1	0.0	0.0	0.0	27.8
경남	31	58.1	9.7	9.7	3.2	0.0	0.0	19.4
제주	1	0.0	0.0	100.0	0.0	0.0	0.0	0.0

□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유기동물 입양을 반대하는 이유로 성견이 아닌 새끼를 사육하고 싶은 열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32.3%)

[사육여부별 유기동물 입양에 반대하는 이유]

(단위 : %)	사 례 수	더 러 울 것 같 음	질 병에 걸 려 있 을 것 같 음	새 로운 집 에 적 응 시 키 기 어 려 움	새 끼 사 육 희 망, 성 견 인 경 우 많 음	어 떻 게 입 양 하 는 지 모 름	기 타	모 름/ 무 응 답
사육	31	16.1	19.4	12.9	<u>32.3</u>	6.5	3.2	9.7
비사육	351	33.3	10.5	14.5	6.8	3.7	19.4	11.7

4. 동물고통 최소화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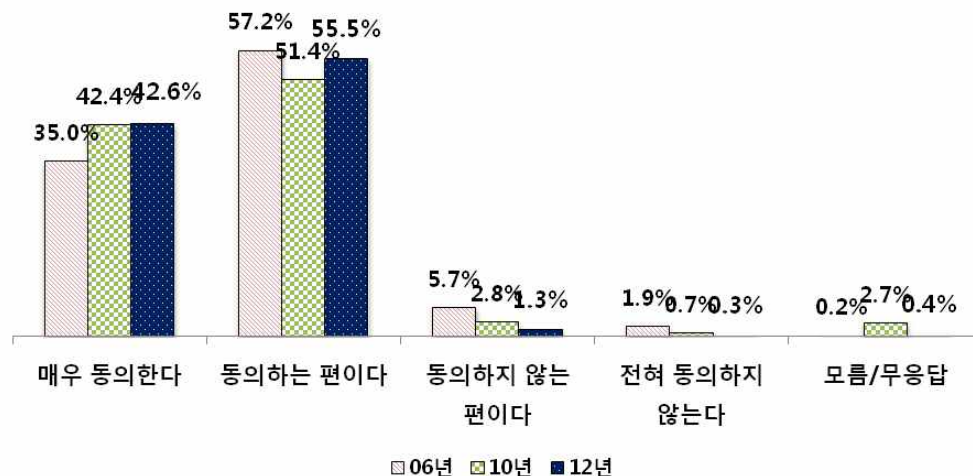
4.1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도덕적 의무에 대한 의견(n=2,000)

질문

문9) 귀하께서는 ‘우리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인 98.1%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매우 동의 42.6% + 동의하는 편 55.5%)
- ☐ 도덕적 의무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2006년 조사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동물에 대한 의식이 꾸준히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도덕적 의무에 대한 의견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도덕적 의무에 대한 의견]

(단위 : %)	매우 동의	동의하는 편	동의하지 않는 편	전혀 동의 안함	모름/무응답	종합평가		
						동의함	동의 안함	모름/무응답
2006년	35.0	57.2	5.7	1.9	0.2	92.2	7.6	0.2
2010년(A)	42.4	51.4	2.8	0.7	2.7	93.8	3.5	2.7
2012년(B)	42.6	55.5	1.3	0.3	0.4	98.1	1.6	0.4
Gap(B-A)	0.2	4.1	-1.5	-0.4	-2.3	4.3	-1.9	-2.3

- 도덕적 의무에 대한 동의는 7대 광역시 98.2%로 높고, 농촌(93.2%)보다 도시(98.5%)에서 많이 나타났음

[지역별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도덕적 의무에 대한 의견]

(단위 : %)	사 례 수	동 의 함	동 의 안 함	모름/ 무응답
수도권	985	97.3	2.2	0.5
7대 광역시	952	98.2	1.4	0.4
도시	1,824	98.5	1.2	0.3
농촌	176	93.2	5.7	1.1
서울	437	98.6	0.9	0.5
부산	145	97.2	2.8	0.0
대구	99	100.0	0.0	0.0
인천	111	93.7	4.5	1.8
광주	53	100.0	0.0	0.0
대전	64	100.0	0.0	0.0
울산	43	100.0	0.0	0.0
경기	437	96.8	3.0	0.2
강원	82	95.1	3.7	1.2
충북	61	100.0	0.0	0.0
충남	80	100.0	0.0	0.0
전북	49	100.0	0.0	0.0
전남	73	98.6	0.0	1.4
경북	109	100.0	0.0	0.0
경남	131	97.7	1.5	0.8
제주	26	100.0	0.0	0.0

-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응답자가 99.4%로 동의하는 비율이 비사육자보다 높았음

[사육여부별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도덕적 의무에 대한 의견]

(단위 : %)	사 례 수	동 의 함	동 의 안 함	모름/ 무응답
사육	357	99.4	0.6	0.0
비사육	1643	97.7	1.8	0.5

-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도덕적 의무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이 나타는 경향을 보였음

[응답자특성별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도덕적 의무에 대한 의견]

(단위 : %)		사 례 수	매우 동의	동의 하는 편	동의 하지 않는 편	전혀 동의 안함	모름/ 무응답	종합평가		
								동의함	동의 안함	모름/ 무응답
연령	19~29세	457	42.9	54.5	1.3	0.7	0.7	97.4	2.0	0.7
	30대	431	44.5	52.9	1.9	0.2	0.5	97.4	2.1	0.5
	40대	409	42.3	55.5	1.5	0.5	0.2	97.8	2.0	0.2
	50대	332	42.5	56.0	1.5	0.0	0.0	98.5	1.5	0.0
	60대 이상	371	40.2	59.3	0.0	0.0	0.5	99.5	0.0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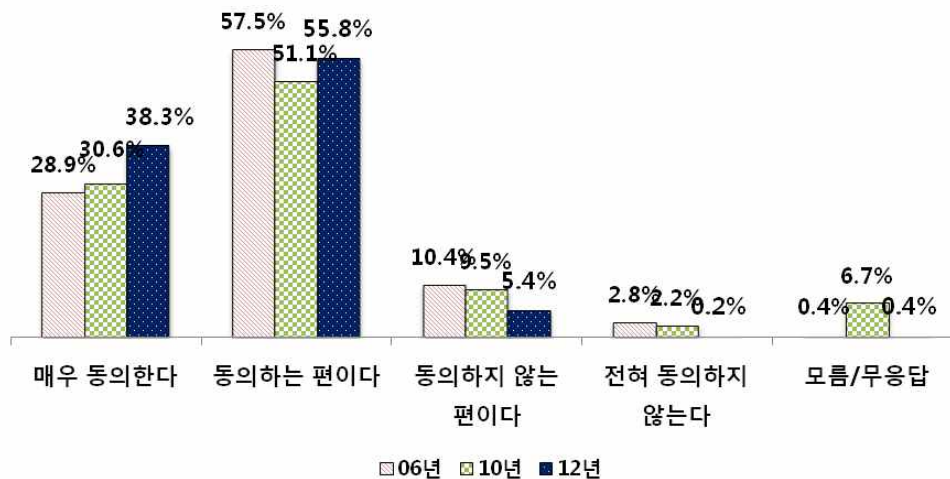
4.2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법제화에 대한 의견(n=2,000)

질문

문10) 그러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법제화에 대해서도 매우 많은 응답자(94.1%)가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매우 동의 38.3% + 동의하는 편 55.8%)
-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법제화에 대한 의견도 2010년에 비해 긍정적인 성향을 띠는 응답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도덕적 의무(98.1%)보다는 다소 낮은 응답 결과를 보였음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법제화에 대한 의견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법제화에 대한 의견]

(단위 : %)	매우 동의	동의하는 편	동의하지 않는 편	전혀 동의 안함	모름/무응답	종합평가		
						동의함	동의 안함	모름/무응답
2006년	28.9	57.5	10.4	2.8	0.4	86.4	13.2	0.4
2010년(A)	30.6	51.1	9.5	2.2	6.7	81.7	11.7	6.7
2012년(B)	38.3	55.8	5.4	0.2	0.4	94.1	5.6	0.4
Gap(B-A)	7.7	4.7	-4.1	-2.0	-6.3	12.4	-6.1	-6.3

□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법제화는 도시에서 94.4%로 다소 높게 나타남

[지역별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법제화에 대한 의견]

(단위 : %)	사례수	동의 함	동의 안 함	모름/ 무응답
수도권	985	93.0	7.0	0.0
7대 광역시	952	94.0	5.5	0.5
도시	1,824	94.4	5.3	0.3
농촌	176	90.9	8.5	0.6
서울	437	93.4	6.6	0.0
부산	145	93.1	4.1	2.8
대구	99	97.0	3.0	0.0
인천	111	94.6	5.4	0.0
광주	53	86.8	11.3	1.9
대전	64	96.9	3.1	0.0
울산	43	100.0	0.0	0.0
경기	437	92.2	7.8	0.0
강원	82	96.3	2.4	1.2
충북	61	93.4	6.6	0.0
충남	80	97.5	2.5	0.0
전북	49	100.0	0.0	0.0
전남	73	94.5	5.5	0.0
경북	109	95.4	4.6	0.0
경남	131	95.4	3.8	0.8
제주	26	88.5	11.5	0.0

□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응답자의 95.5%가 법제화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육여부별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법제화에 대한 의견]

(단위 : %)	사례수	동의 함	동의 안 함	모름/ 무응답
사육	357	95.5	4.2	0.3
비사육	1643	93.8	5.8	0.4

□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법제화를 찬성하는 의견은 3세대 세대(97.4%)에서 높은 성향을 띄었으며, 가구원 구성이 많을수록 법제화를 찬성하고 있었음

[응답자특성별 동물고통 최소화를 위한 법제화에 대한 의견]

(단위 : %)		사 례 수	매우 동의	동의 하는 편	동의 하지 않는 편	전혀 동의 안함	모름/ 무응답	종합평가		
								동의함	동의 안함	모름/ 무응답
성별	남자	899	33.9	58.8	6.6	0.3	0.3	92.8	6.9	0.3
	여자	1,101	41.9	53.3	4.4	0.1	0.4	95.2	4.5	0.4
가정 분류	1인 세대	222	27.0	64.0	8.6	0.0	0.5	91.0	8.6	0.5
	1세대 세대	388	34.3	59.8	5.4	0.0	0.5	94.1	5.4	0.5
	2세대 세대	1,236	41.5	53.0	4.9	0.3	0.3	94.5	5.2	0.3
	3세대 세대	115	47.0	50.4	2.6	0.0	0.0	97.4	2.6	0.0
	모름/무응답	39	15.4	74.4	10.3	0.0	0.0	89.7	10.3	0.0

5. 동물 학대 및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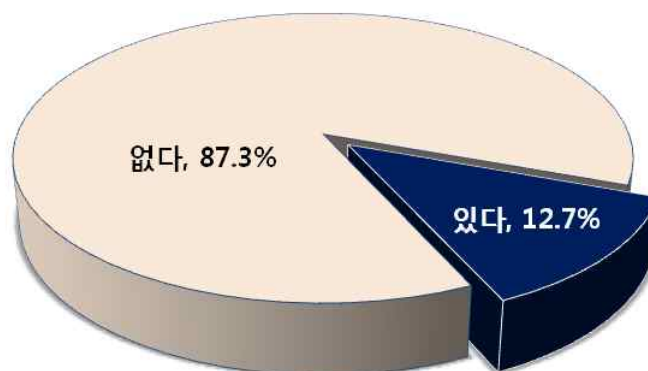
5.1 동물 학대사례 목격 경험(n=2,000)

질 문

문11) 동물의 목을 매달아 죽인다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등의 동물 학대 사례를 주변에서 목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 ☐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를 목격한 응답자는 전체의 12.7%로 나타나 동물에 대한 학대가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동물 학대사례 목격 경험



[동물 학대사례 목격 경험]

(단위 : %)	있다	없다
2012년 본조사	12.7	87.3

- 동물 학대사례 목격은 수도권이 15.6%, 7대 광역시가 14.6%로 나왔으며, 농촌이 14.8%로 나타나 지방 농촌보다 대도시 인근의 농촌지역에서 학대사례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지역별 동물 학대사례 목격 경험]

(단위 : %)	사례수	있다	없다
수도권	985	15.6	84.4
7대 광역시	952	14.6	85.4
도시	1,824	12.5	87.5
농촌	176	14.8	85.2
서울	437	19.9	80.1
부산	145	6.9	93.1
대구	99	14.1	85.9
인천	111	11.7	88.3
광주	53	3.8	96.2
대전	64	17.2	82.8
울산	43	4.7	95.3
경기	437	12.4	87.6
강원	82	18.3	81.7
충북	61	16.4	83.6
충남	80	3.8	96.3
전북	49	12.2	87.8
전남	73	12.3	87.7
경북	109	7.3	92.7
경남	131	3.8	96.2
제주	26	19.2	80.8

- 동물 학대사례를 목격한 응답자들은 주로 남자(15.9%)들이 많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았음

[응답자특성별 동물 학대사례 목격 경험]

(단위 : %)		사례수	있다	없다
성별	남자	899	15.9	84.1
	여자	1,101	10.1	89.9
연령	19~29세	457	9.2	90.8
	30대	431	10.7	89.3
	40대	409	13.0	87.0
	50대	332	13.0	87.0
	60대 이상	371	18.9	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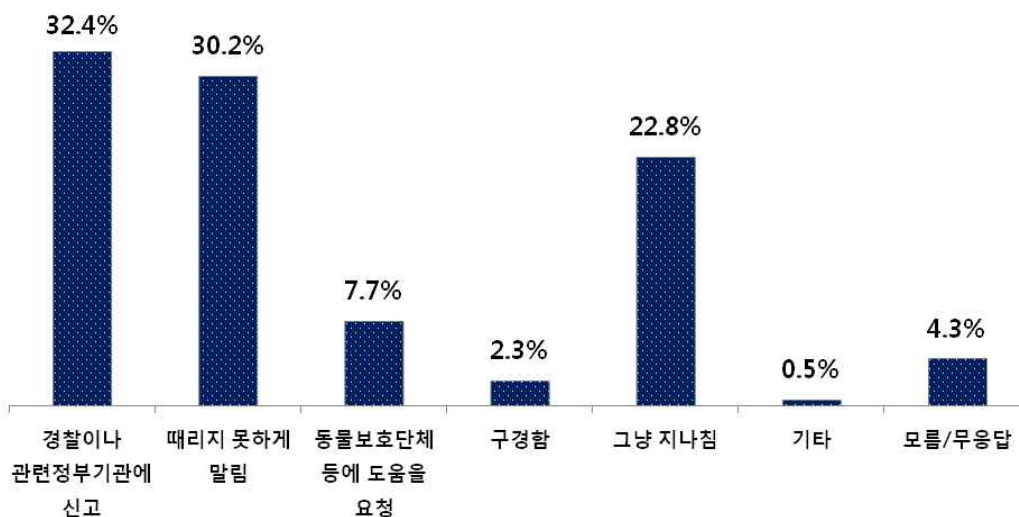
5.2 동물 학대사례 목격 후 대처방법(n=2,000)

질 문

문12) (문 11에서 1번 답을 한 경우)동물학대 사례를 목격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 11에서 2번 답을 한 경우)만약 동물 학대 사례를 목격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동물 학대사례를 목격하거나 목격하였을 경우 응답자들은 대처 방법으로 ‘경찰이나 관련 정부기관에 신고’(32.4%)또는 ‘때리지 못하게 말림’(30.2%)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 기타 의견으로 ‘어릴적이라 그냥 넘겼음’(5명), ‘상황마다 다름’(1명), ‘신고 후에 말림’(1명) 등이 있었음

동물 학대사례 목격 후 대처방법



[동물 학대사례 목격 후 대처방법]

(단위 : %)	경찰이나 정부기관에 신고	때리지 못하게 말림	동물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	구경함	그냥 지나침	기타	모름/무응답
2012년 본조사	32.4	30.2	7.7	2.3	22.8	0.5	4.3

□ 신고를 통한 대처는 대전(60.9%)과 제주(61.5%)에서 많이 나타남

[지역별 동물 학대사례 목격 후 대처방법]

(단위 : %)	사 례 수	경찰이나 정부기관 에 신고	때리지 못하게 말림	동물보호단 체에 도움 요청	구경함	그냥 지나침	기타	모름/ 무응답
서울	437	37.1	23.1	8.5	2.5	25.6	0.2	3.0
부산	145	33.1	26.2	5.5	0.0	20.7	0.7	13.8
대구	99	33.3	36.4	8.1	2.0	20.2	0.0	0.0
인천	111	24.3	21.6	12.6	0.9	35.1	3.6	1.8
광주	53	35.8	45.3	1.9	0.0	17.0	0.0	0.0
대전	64	60.9	15.6	3.1	1.6	15.6	0.0	3.1
울산	43	30.2	16.3	25.6	0.0	27.9	0.0	0.0
경기	437	28.1	29.3	7.3	4.6	23.1	0.9	6.6
강원	82	22.0	34.1	8.5	1.2	17.1	0.0	17.1
충북	61	18.0	36.1	0.0	0.0	41.0	0.0	4.9
충남	80	12.5	55.0	8.8	0.0	23.8	0.0	0.0
전북	49	36.7	34.7	10.2	2.0	16.3	0.0	0.0
전남	73	28.8	46.6	4.1	0.0	19.2	0.0	1.4
경북	109	33.0	39.4	5.5	0.9	21.1	0.0	0.0
경남	131	41.2	35.9	9.9	0.8	11.5	0.0	0.8
제주	26	61.5	0.0	0.0	23.1	15.4	0.0	0.0

□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응답자들은 비사육자보다 학대사례 목격 후 경찰 신고, 못하게 말림 등 대처방법에 있어 비사육자보다 적극적이었음

[사육여부별 동물 학대사례 목격 후 대처방법]

(단위 : %)	사 례 수	경찰이나 정부기관 에 신고	때리지 못하게 말림	동물보호단 체에 도움 요청	구경함	그냥 지나침	기타	모름/ 무응답
사육	357	34.7	31.7	10.9	2.2	15.1	0.0	5.3
비사육	1643	31.9	29.8	7.0	2.3	24.4	0.6	4.0

□ 경찰이나 관련 정부기관에 신고를 선호하는 응답은 20대(43.5%)가 많았으며, 때리지 못하게 말리는 응답자는 60대 이상(45.6%)이 많았음

[응답자특성별 동물 학대사례 목격 후 대처방법]

(단위 : %)		사 례 수	경찰이나 정부기관 에 신고	때리지 못하게 말림	동물보호단 체에 도움 요청	구경함	그냥 지나침	기타	모름/ 무응답
연령	19~29세	457	43.5	22.3	8.8	4.6	17.7	0.4	2.6
	30대	431	37.6	17.4	10.7	1.9	22.7	0.9	8.8
	40대	409	30.6	29.1	9.5	1.0	24.2	0.7	4.9
	50대	332	22.6	41.6	6.3	1.8	23.8	0.3	3.6
	60대 이상	371	23.5	45.6	2.2	1.6	26.4	0.0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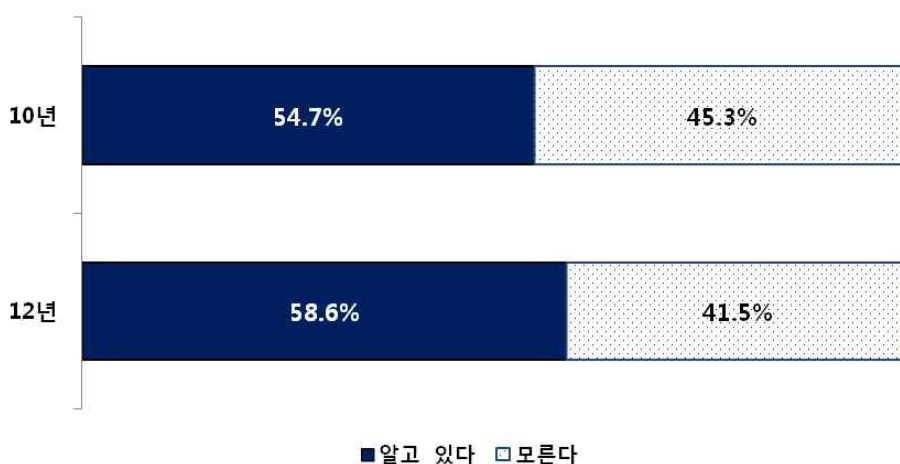
5.3 동물보호법 인지 여부(n=2,000)

질문

문13) 동물을 학대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동물보호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58.6%가 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임(▲3.9%p)
- ☐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 중이나 60% 미만의 높지 않은 수준이므로 홍보 강화 등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동물보호법 인지 여부



[동물보호법 인지 여부]

(단위 : %)	알고 있다	모른다
2010년(A)	54.7	45.3
2012년(B)	58.6	41.5
Gap(B-A)	3.9	-3.8

- ☐ 동물보호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수도권 56.4%, 7대 광역시 59.7%로 나타났다

[지역별 동물보호법 인지 여부]

(단위 : %)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른다
수도권	985	56.4	43.6
7대 광역시	952	59.7	40.3
도시	1,824	59.2	40.8
농촌	176	52.3	47.7
서울	437	53.1	46.9
부산	145	60.7	39.3
대구	99	72.7	27.3
인천	111	67.6	32.4
광주	53	64.2	35.8
대전	64	53.1	46.9
울산	43	76.7	23.3
경기	437	57.0	43.0
강원	82	64.6	35.4
충북	61	52.5	47.5
충남	80	72.5	27.5
전북	49	32.7	67.3
전남	73	57.5	42.5
경북	109	64.2	35.8
경남	131	55.0	45.0
제주	26	42.3	57.7

- ☐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응답자들은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63.9%)

[사육여부별 동물보호법 인지 여부]

(단위 : %)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른다
사육	357	63.9	36.1
비사육	1643	57.4	42.6

- ☐ 응답자 중 동물보호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많이 나타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응답자특성별 동물보호법 인지 여부]

(단위 : %)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른다
연령	19~29세	457	61.1	38.9
	30대	431	61.7	38.3
	40대	409	60.6	39.4
	50대	332	59.6	40.4
	60대 이상	371	48.5	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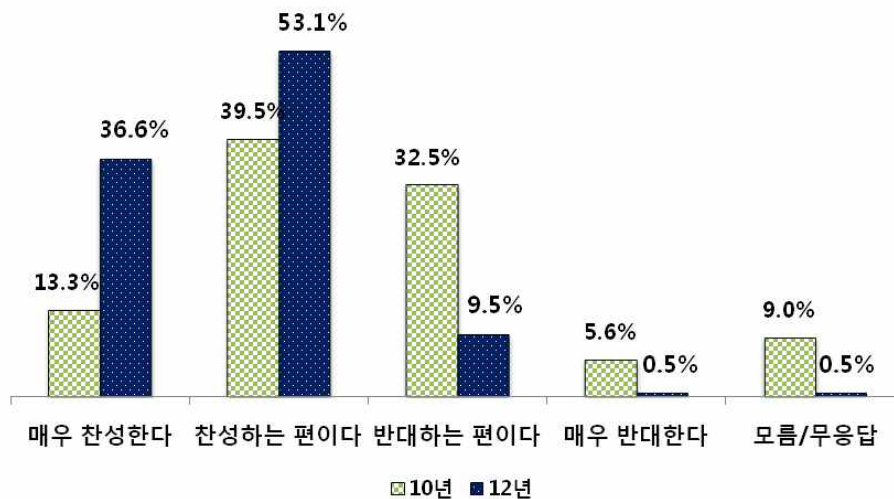
5.4 동물학대자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n=2,000)

질문

문14) 동물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있어 동물학대시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동물학대자에게 이러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대해 응답자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89.6%)이 대다수였음(매우 찬성 36.6% + 찬성하는 편 53.1%)
- 2010년에는 긍정적인 의견이 52.8%에 불과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긍정적 비율이 89.6%로 높게 나타났음. 이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동물보호법에 대한 시선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사료됨

동물학대자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



[동물학대자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 %)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모름/무응답	종합평가		
						동의함	동의안함	모름/무응답
2010년(A)	13.3	39.5	32.5	5.6	9.0	52.8	39.1	9.0
2012년(B)	36.6	53.1	9.5	0.5	0.5	89.6	10.0	0.5
Gap(B-A)	23.3	13.6	-23.0	-5.1	-8.5	36.8	-29.1	-8.5

- 동물학대자 처벌 강화 찬성에 대해서는 수도권이 90.2%, 도시가 90.0%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에서는 처벌 강화에 대해 도시보다 다소 완화된 입장을 많이 보였음

[지역별 동물학대자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 %)	사례수	동의함	동의 안함	모름/무응답
수도권	985	90.2	9.5	0.3
7대 광역시	952	89.2	10.6	0.2
도시	1,824	90.0	9.6	0.4
농촌	176	85.8	13.1	1.1
서울	437	86.7	13.0	0.2
부산	145	92.4	7.6	0.0
대구	99	86.9	13.1	0.0
인천	111	94.6	4.5	0.9
광주	53	88.7	11.3	0.0
대전	64	93.8	6.3	0.0
울산	43	88.4	11.6	0.0
경기	437	92.4	7.3	0.2
강원	82	91.5	4.9	3.7
충북	61	83.6	11.5	4.9
충남	80	93.8	6.3	0.0
전북	49	85.7	14.3	0.0
전남	73	100.0	0.0	0.0
경북	109	78.9	21.1	0.0
경남	131	87.0	13.0	0.0
제주	26	88.5	11.5	0.0

- 동물학대자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은 여자(92.4%)들이 남자(86.2%) 보다 많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특히 많았음

[응답자특성별 동물학대자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

(단위 : %)		사례수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모름/무응답	종합평가		
								동의함	동의 안함	모름/무응답
성별	남자	899	29.9	56.3	12.3	0.9	0.6	86.2	13.2	0.6
	여자	1,101	42.0	50.4	7.2	0.1	0.4	92.4	7.3	0.4
연령	19~29세	457	43.3	50.1	5.3	0.9	0.4	93.4	6.1	0.4
	30대	431	37.8	54.8	6.7	0.5	0.2	92.6	7.2	0.2
	40대	409	38.1	53.5	7.6	0.5	0.2	91.7	8.1	0.2
	50대	332	29.2	57.2	12.3	0.3	0.9	86.4	12.7	0.9
	60대 이상	371	31.5	50.4	17.5	0.0	0.5	81.9	17.5	0.5

6. 동물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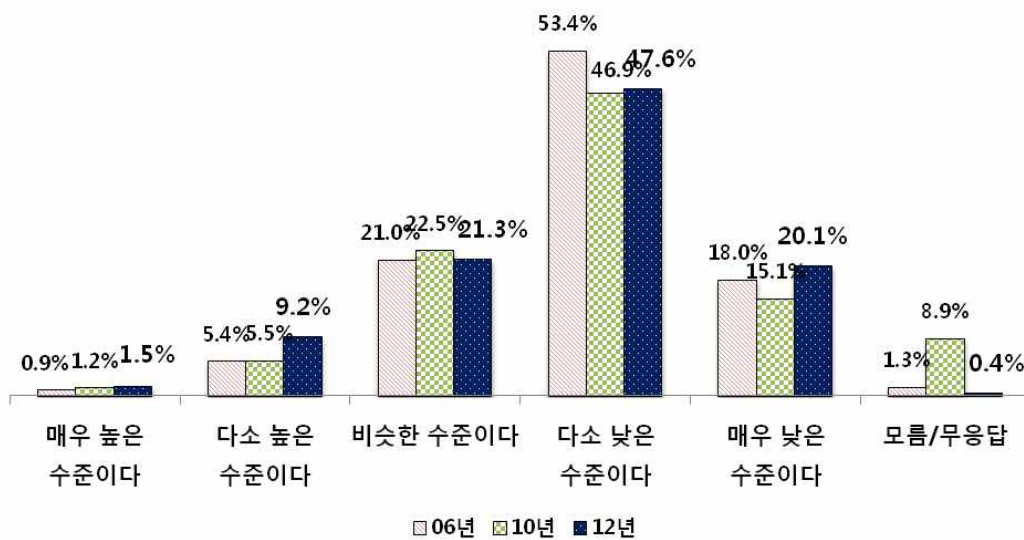
6.1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 평가(n=2,000)

질 문

문15)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에 대해 평가한 결과 응답자들의 67.7%가 낮은 수준으로 여기고 있었음(매우 낮은 수준 20.1% + 다소 낮은 수준 47.6%)
- ☐ 2010년에 비해 동물보호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는 비율도 증가하였음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 평가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 평가]

(단위 : %)	매우 높은 수준	다소 높은 수준	비슷한 수준	다소 낮은 수준	매우 낮은 수준	모름/무응답	종합평가		
							높은 수준	비슷한 수준	낮은 수준
2006년	0.9	5.4	21.0	53.4	18.0	1.3	6.3	21.0	74.4
2010년(A)	1.2	5.5	22.5	46.9	15.1	8.9	6.7	22.5	62.0
2012년(B)	1.5	9.2	21.3	47.6	20.1	0.4	10.7	21.3	67.7
Gap(B-A)	0.3	3.7	-1.2	0.7	5.0	-8.5	4.0	-1.2	5.7

□ 동물보호 수준에 대해 도시(10.5%)보다는 농촌(11.9%)이 다소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 평가]

(단위 : %)	사례수	높은 수준	비슷한 수준	낮은 수준	모름/무응답
도시	1,824	10.5	21.3	67.9	0.3
농촌	176	11.9	21.0	65.9	1.1
서울	437	21.5	20.4	58.1	0.0
부산	145	4.1	18.6	76.6	0.7
대구	99	7.1	18.2	74.7	0.0
인천	111	1.8	18.9	78.4	0.9
광주	53	3.8	11.3	84.9	0.0
대전	64	15.6	17.2	67.2	0.0
울산	43	2.3	16.3	81.4	0.0
경기	437	7.8	20.4	71.9	0.0
강원	82	18.3	22.0	58.5	1.2
충북	61	13.1	21.3	57.4	8.2
충남	80	18.8	25.0	56.3	0.0
전북	49	12.2	34.7	53.1	0.0
전남	73	9.6	23.3	67.1	0.0
경북	109	2.8	24.8	72.5	0.0
경남	131	2.3	26.0	71.8	0.0
제주	26	0.0	42.3	57.7	0.0

□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비율이 많았음(71.8%)

[동물보호법 인지 여부별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 평가]

(단위 : %)	사례수	높은 수준	비슷한 수준	낮은 수준	모름/무응답
알고 있다	1171	8.7	19.4	71.8	0.1
모른다	829	13.4	23.9	61.9	0.8

□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에 대해 고연령층은 수준이 높다고 보는데 반해 저연령층은 수준이 낮게 생각하는 비율이 많았음

[응답자특성별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 평가]

(단위 : %)	사례수	매우 높은 수준	다소 높은 수준	비슷한 수준	다소 낮은 수준	매우 낮은 수준	모름/무응답	종합평가		
								높은 수준	비슷한 수준	낮은 수준
연령	19~29세	457	0.2	4.8	22.1	56.0	16.8	0.0	5.0	72.9
	30대	431	1.4	9.7	17.2	50.3	21.1	0.2	11.1	71.5
	40대	409	1.0	7.6	26.2	42.8	22.2	0.2	8.6	26.2
	50대	332	1.2	6.6	19.6	52.4	19.0	1.2	7.8	71.4
	60대 이상	371	4.0	17.8	21.0	35.0	21.6	0.5	21.8	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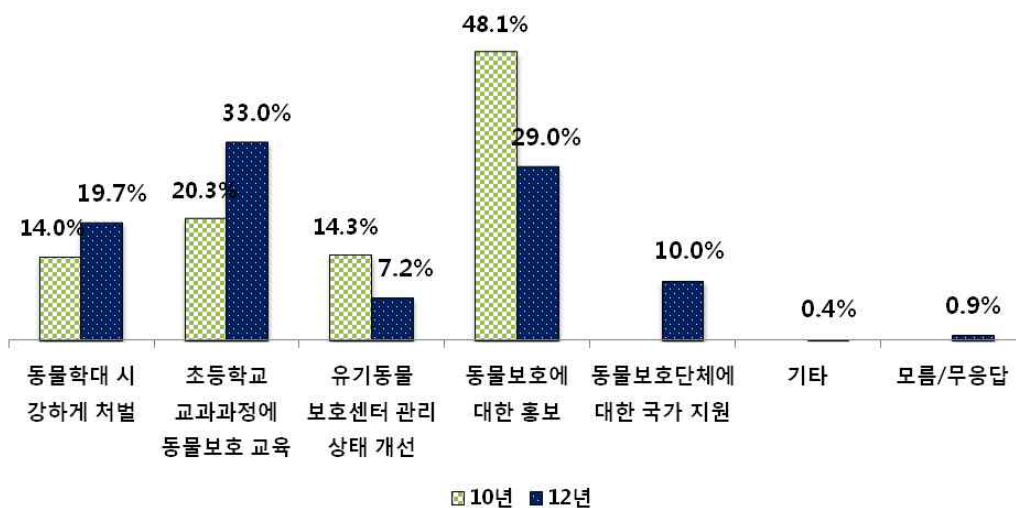
6.2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n=2,000)

질문

문16)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우선순위로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동물보호 교육’(33.0%)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29.0%)나 ‘동물학대 시 강하게 처벌’(19.7%)에 대한 목소리도 많았음
- 기타의견은 ‘국민인식변화에 대한 교육필요’(2명), ‘인간·동물 사랑에 존엄성 교육이 우선’(1명), ‘사회적식 변화’(1명),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1명)등이 있었음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 %)	동물학대 시 강하게 처벌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동물보호 교육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 상태 개선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	동물보호 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	기타	모름/무응답
2010년(A)	14	20.3	14.3	48.1	-	-	-
2012년(B)	19.7	33	7.2	29	10	0.4	0.9
Gap(B-A)	5.7	12.7	-7.1	-19.1	-	-	-

□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교과과정에서의 교육을 희망하는 지역은 광주(41.5%), 대전(40.6%), 강원(41.5%)에서 특히 높았음

[지역별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 %)	사례수	동물학대 시 강하게 처벌	초등학교 교과과정 동물보호 교육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 상태 개선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	동물보호 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	기타	모름/무응답
서울	437	16.9	36.2	5.0	29.7	11.4	0.5	0.2
부산	145	19.3	24.8	11.7	32.4	9.7	0.7	1.4
대구	99	21.2	34.3	7.1	25.3	12.1	0.0	0.0
인천	111	23.4	32.4	5.4	31.5	5.4	0.9	0.9
광주	53	3.8	41.5	7.5	32.1	15.1	0.0	0.0
대전	64	20.3	40.6	9.4	28.1	1.6	0.0	0.0
울산	43	25.6	34.9	11.6	18.6	9.3	0.0	0.0
경기	437	24.5	34.1	5.7	24.9	9.6	0.7	0.5
강원	82	23.2	41.5	2.4	28.0	2.4	1.2	1.2
충북	61	16.4	19.7	16.4	34.4	4.9	0.0	8.2
충남	80	27.5	38.8	6.3	18.8	8.8	0.0	0.0
전북	49	36.7	8.2	18.4	28.6	8.2	0.0	0.0
전남	73	17.8	31.5	0.0	39.7	11.0	0.0	0.0
경북	109	8.3	34.9	12.8	28.4	14.7	0.0	0.9
경남	131	13.0	27.5	6.9	38.9	10.7	0.0	3.1
제주	26	11.5	23.1	7.7	23.1	34.6	0.0	0.0

□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응답자는 ‘동물학대 시 강하게 처벌’(24.1%)을 다소 많이 선호하였음

[사육여부별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 %)	사례수	동물학대 시 강하게 처벌	초등학교 교과과정 동물보호 교육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 상태 개선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	동물보호 단체에 대한 국가 지원	기타	모름/무응답
사육	357	24.1	28.6	6.7	28.3	10.9	0.6	0.8
비사육	1643	18.7	34.0	7.2	29.1	9.8	0.4	0.9

□ 비교적 고연령층은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교과과정의 교육(36.9%)이나 홍보(38.6%)를 많이 선호한데 반해 저연령층은 강한 처벌(27.6%)을 크게 선호함

[응답자특성별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 %)		사 례 수	동물 학대 시 강하게 처벌	초 등 학 교 과 목 동 물 보 호 교 육	유 기 동 물 보 호 관 리 상 태 개 선	동 물 보 호 에 대 한 홍 보	동 물 보 호 단 체 에 대 한 국 가 지 원	기 타	모 름 / 무 응 답
연 령	19~29세	457	27.6	30.4	7.0	18.6	15.3	0.7	0.4
	30대	431	20.2	35.3	9.3	26.0	7.9	0.2	1.2
	40대	409	14.9	32.8	6.1	34.2	10.8	0.5	0.7
	50대	332	16.0	29.5	7.8	38.6	6.6	0.3	1.2
	60대 이상	371	17.8	36.9	5.4	30.7	8.1	0.3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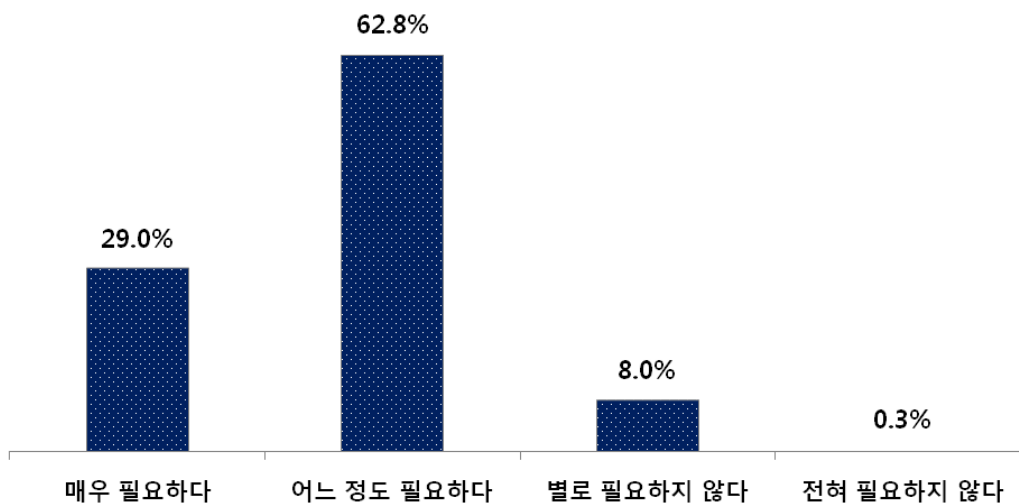
6.3 동물보호 정책 추진 필요성(n=2,000)

질문

문17)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동물보호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91.8%(매우 필요 29.0% + 어느 정도 필요 62.8%)로 압도적으로 많았음
- ☐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8.3%(별로 필요하지 않다 8.0% + 전혀 필요하지 않다 0.3%)에 불과하였음

동물보호 정책 추진 필요성



[동물보호 정책 추진 필요성]

(단위 : %)	매우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종합평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2012년 본조사	29.0	62.8	8.0	0.3	91.8	8.3

- 동물보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강원(100.0%), 울산(97.7%), 인천(97.3%) 지역에서 다소 높게 거론됨

[지역별 동물보호 정책 추진 필요성]

(단위 : %)	사례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서울	437	86.0	14.0
부산	145	95.9	4.1
대구	99	89.9	10.1
인천	111	97.3	2.7
광주	53	94.3	5.7
대전	64	96.9	3.1
울산	43	97.7	2.3
경기	437	95.2	4.8
강원	82	100.0	0.0
충북	61	88.5	11.5
충남	80	95.0	5.0
전북	49	87.8	12.2
전남	73	91.8	8.2
경북	109	90.8	9.2
경남	131	80.9	19.1
제주	26	100.0	0.0

- 동물보호 정책 추진 필요성은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응답자(93.8%)와 동물보호법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93.9%)들이 높게 필요로 하고 있었음

[사육여부별 & 동물보호법 인지여부별 동물보호 정책 추진 필요성]

(단위 : %)		사례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사육 여부	사육	357	93.8	6.2
	비사육	1643	91.3	8.7
동물보호법 인지여부	인지	1171	93.9	6.1
	미인지	829	88.8	11.2

- 동물보호 정책 추진 필요성 제기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응답자들에 많이 포진되어 있으며, 고소득층은 필요성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특성별 동물보호 정책 추진 필요성]

(단위 : %)		사례수	매우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종합평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840	28.9	62.4	8.5	0.2	91.3	8.7
	201~300만원	520	31.9	61.0	7.1	0.0	92.9	7.1
	301~400만원	296	25.3	66.9	7.8	0.0	92.2	7.8
	401~500만원	126	24.6	63.5	11.9	0.0	88.1	11.9
	501만원 이상	83	32.5	53.0	10.8	3.6	85.5	14.5
	모름/무응답	135	27.4	68.9	3.7	0.0	96.3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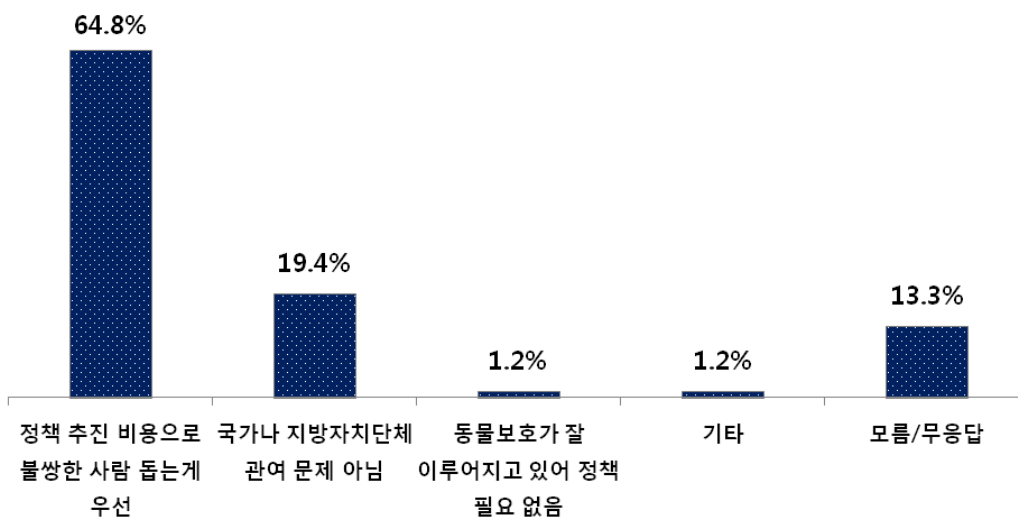
6.4 동물보호 정책 불필요 이유(n=165)

질문

문18) (문17에서 3,4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 하나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 동물보호 정책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응답자들(165명)은 ‘정책 추진 비용으로 불쌍한 사람 돕는게 우선’(64.8%)이라는 이유를 가장 크게 제기하였으며, 다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여 문제가 아님’(19.4%)이 응답되었음. 이는 정책 반대자들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개입을 싫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기타 의견으로 ‘인간의 의식개선과 역량으로 풀어나가야 함’과 ‘관심없다’(각각 1명)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동물보호 정책 불필요 이유



[동물보호 정책 불필요 이유]

(단위 : %)	정책 추진 비용으로 불쌍한 사람 돕는게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여 문제 아님	동물보호가 잘 이루어져 정책 필요 없음	기타	모름/무응답
2012년 본조사	64.8	19.4	1.2	1.2	13.3

□ ‘정책 추진 비용으로 불쌍한 사람 돕는게 우선’이라는 응답은 서울(85.2%)에서 많이 나타났음

[지역별 동물보호 정책 불필요 이유]

(단위 : %)	사례수	정책 추진 비용으로 불쌍한 사람 돕는게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여 문제 아님	동물보호가 잘 이루어져 정책 필요 없음	기타	모름/ 무응답
서울	61	85.2	11.5	0.0	1.6	1.6
부산	6	50.0	16.7	0.0	16.7	16.7
대구	10	80.0	20.0	0.0	0.0	0.0
인천	3	0.0	33.3	0.0	0.0	66.7
광주	3	100.0	0.0	0.0	0.0	0.0
대전	2	100.0	0.0	0.0	0.0	0.0
울산	1	0.0	0.0	0.0	0.0	100.0
경기	21	66.7	28.6	0.0	0.0	4.8
충북	7	42.9	14.3	0.0	0.0	42.9
충남	4	50.0	25.0	0.0	0.0	25.0
전북	6	0.0	100.0	0.0	0.0	0.0
전남	6	33.3	33.3	0.0	0.0	33.3
경북	10	70.0	10.0	20.0	0.0	0.0
경남	25	44.0	16.0	0.0	0.0	40.0

□ 반려동물을 사육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정책 추진 비용으로 불쌍한 사람 돕는게 우선’이라는 응답이 사육하는 응답자보다 높았음

[사육여부별 동물보호 정책 불필요 이유]

(단위 : %)	사례수	정책 추진 비용으로 불쌍한 사람 돕는게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여 문제 아님	동물보호가 잘 이루어져 정책 필요 없음	기타	모름/ 무응답
사육	22	59.1	18.2	0.0	0.0	22.7
비사육	143	65.7	19.6	1.4	1.4	11.9

□ ‘정책 추진 비용으로 불쌍한 사람 돕는게 우선’이라는 응답은 20~30대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 관여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은 50대가 주도하고 있었음

[응답자특성별 동물보호 정책 불필요 이유]

(단위 : %)		사례수	정책 추진 비용으로 불쌍한 사람 돕는게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 관여 문제 아님	동물보호가 잘 이루어져 정책 필요 없음	기타	모름/ 무응답
연령	19~29세	11	72.7	18.2	0.0	0.0	9.1
	30대	22	72.7	18.2	0.0	4.5	4.5
	40대	25	56.0	16.0	0.0	0.0	28.0
	50대	49	61.2	24.5	2.0	2.0	10.2
	60대 이상	58	67.2	17.2	1.7	0.0	13.8

7.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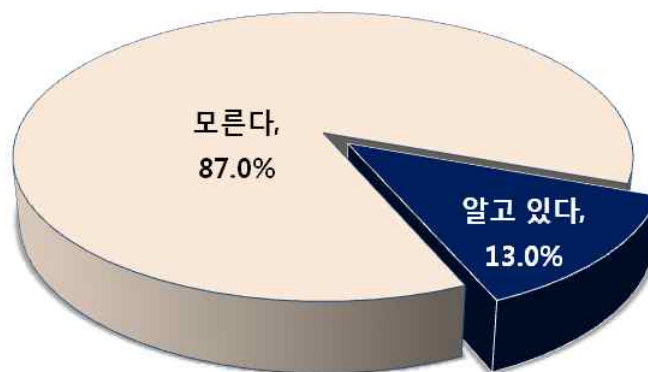
7.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인지 여부(n=2,000)

질 문

문19) 동물의 타고난 본성에 최대한 가깝게 사육하는 농장에 대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하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생산물(고기, 계란, 우유 등)에 대해 동물복지 표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3.0%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인구수로 봤을 때 약 660만명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⁷⁾
- ☐ 인증제에 대한 인지도 상승을 위해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점차적 확대와 더불어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인지 여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인지 여부]

(단위 : %)	알고 있다	모른다
2012년 본조사	13.0	87.0

7) 50,734,284명(2011년 기준 전국 주민등록 인구수, 통계청) X 13.0%

-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해서는 도시(12.7%)보다 농촌(15.9%)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인지 여부]

(단위 : %)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른다
수도권	985	13.2	86.8
7대 광역시	952	11.8	88.2
도시	1,824	12.7	87.3
농촌	176	15.9	84.1
서울	437	13.7	86.3
부산	145	11.0	89.0
대구	99	5.1	94.9
인천	111	13.5	86.5
광주	53	3.8	96.2
대전	64	12.5	87.5
울산	43	14.0	86.0
경기	437	12.6	87.4
강원	82	18.3	81.7
충북	61	6.6	93.4
충남	80	15.0	85.0
전북	49	22.4	77.6
전남	73	19.2	80.8
경북	109	11.9	88.1
경남	131	16.8	83.2
제주	26	7.7	92.3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주로 50대(18.4%)에
 서 많았으며, 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25.3%)도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20대와 소득수준이 낮은 응답자들에 인지도가 다소 떨어져 이들을 대상으
 로 한 홍보정책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응답자특성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인지 여부]

(단위 : %)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른다
연령	19~29세	457	9.6	90.4
	30대	431	14.2	85.8
	40대	409	13.0	87.0
	50대	332	18.4	81.6
	60대 이상	371	11.1	88.9
평균소득	200만원 이하	840	9.8	90.2
	201~300만원	520	14.0	86.0
	301~400만원	296	14.2	85.8
	401~500만원	126	19.8	80.2
	501만원 이상	83	25.3	74.7
	모름/무응답	135	12.6	8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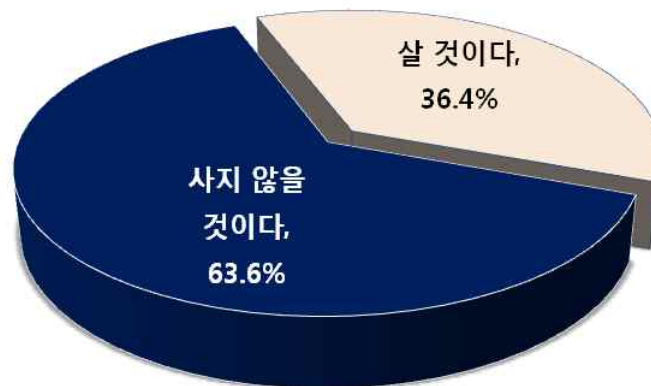
7.2 동물복지축산물 구입 의향(n=2,000)

질 문

문20)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일반 계란보다 3-4배가 비쌉니다. 이러한 계란 등 동물복지 축산물을 구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축산물에 대해서는 10명중 약 3~4명이 살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구입의향은 남녀간의 차이가 뚜렷하였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구입 의향이 높았음

동물복지축산물 구입 의향



[동물복지축산물 구입 의향]

(단위 : %)	사지 않을 것이다	살 것이다
2012년 본조사	63.6	36.4

-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해서 구입할 의향은 수도권 36.0%, 7대 광역시 38.1%로 나타났음. 또한, 도시(35.0%)보다 농촌(50.6%)의 구입의향이 높았음

[지역별 동물복지축산물 구입 의향]

(단위 : %)	사례수	사지 않을 것이다	살 것이다
수도권	985	64.0	36.0
7대 광역시	952	61.9	38.1
도시	1,824	65.0	35.0
농촌	176	49.4	50.6
서울	437	65.2	34.8
부산	145	62.1	37.9
대구	99	51.5	48.5
인천	111	68.5	31.5
광주	53	52.8	47.2
대전	64	54.7	45.3
울산	43	55.8	44.2
경기	437	61.6	38.4
강원	82	57.3	42.7
충북	61	75.4	24.6
충남	80	77.5	22.5
전북	49	75.5	24.5
전남	73	68.5	31.5
경북	109	56.0	44.0
경남	131	69.5	30.5
제주	26	76.9	23.1

- 동물복지축산물은 여성(40.4%),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구성원이 많을수록 구매 의향이 높게 나타났음

[응답자특성별 동물복지축산물 구입 의향]

(단위 : %)		사례수	사지 않을 것이다	살 것이다
성별	남자	899	68.5	31.5
	여자	1,101	59.6	40.4
평균소득	200만원 이하	840	65.6	34.4
	201~300만원	520	65.6	34.4
	301~400만원	296	58.8	41.2
	401~500만원	126	57.1	42.9
	501만원 이상	83	44.6	55.4
	모름/무응답	135	71.9	28.1
가정분류	1인 세대	222	68.5	31.5
	1세대 세대	388	65.5	34.5
	2세대 세대	1,236	62.5	37.5
	3세대 세대	115	56.5	43.5
	모름/무응답	39	71.8	28.2

부록

설문지

ID				
----	--	--	--	--

201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조사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의뢰로 (사)한국사회경제연구원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알아보고자 수행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결과는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에 보고할 연구보고서에 활용될 것이며, 개인적인 응답내용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8월

조사의뢰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조 사 자 : (사)한국사회경제연구원

연 락 처 : 031-225-2548 경제학박사 이 무 영

문1) 현재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문2) (문1에서 1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그럼, 개와 고양이 중 어느 것을 기르고 있습니까? (응답된 각각에 대하여) 몇 마리나 기르고 계십니까?

1. 개 () 마리
2. 고양이 () 마리

문3) (문 2에서 ①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가정에서 기르는 개는 국가에 등록하여 잃어버렸을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동물등록제’가 내년부터 실시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귀하께서는 현재 기르는 개를 등록하시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이미 등록했다

문4) (문3에서 2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등록을 안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개를 기르는 것은 시민의 자유인데 국가에 등록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
2. 등록하는 것이 귀찮다
3.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에 반대한다
4. 동물등록 시 마이크로칩 삽입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5.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문5) (문1에서 1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2011년 유기 고양이는 4만두 정도되며 이 중 대부분은 길고양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의 경우 개체조절을 위하여 중성화 후 방사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수술 후 방사하는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반대하는 편이다
4. 매우 반대한다

문6) (문5에서 3,4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중성화 수술은 동물학대이므로 반대한다
2. 중성화는 하되 방사하지 말고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3. 길고양이는 전부 안락사하여야 한다
4.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문7) 새로 반려동물을 기를 때 업소에서 구입하지 않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반대하는 편이다
4. 매우 반대한다

문8) (문7에서 3,4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 하나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 유기동물은 더러울 것 같다
2. 유기동물은 질병에 걸려 있을 것 같다
3. 유기동물을 새로운 집에 적응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다
4. 어린 새끼를 키우고 싶은데 유기동물은 보통 성견인 경우가 많다
5. 유기동물을 어떻게 입양하는지 모른다
6. 기타 (적어 주십시오 ; _____)

문9) 귀하께서는 ‘우리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 매우 동의한다
2. 동의하는 편이다
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10) 그러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 매우 동의한다
2. 동의하는 편이다
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11) 동물의 목을 매달아 죽인다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등의 동물학대 사례를 주변에서 목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문12) (문 11에서 1번 답을 한 경우)동물학대 사례를 목격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 11에서 2번 답을 한 경우)만약 동물 학대 사례를 목격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경찰이나 관련정부기관에 신고를 한다
2. 때리지 못하게 말린다
3. 동물보호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
4. 구경한다
5. 그냥 지나친다
6. 기타 (적어 주십시오 ; _____)

문13) 동물을 학대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동물보호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 알고 있다
2. 모른다

문14) 동물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있어 동물학대시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동물학대자에게 이러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반대하는 편이다
4. 매우 반대한다

문15)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높은 수준이다
2. 다소 높은 수준이다
3. 비슷한 수준이다
4. 다소 낮은 수준이다
5.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문16)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동물학대 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2. 초등학교 교과과장에 동물보호 교육을 넣어야 한다
3.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4.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5.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6. 국가에서 동물보호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7.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문17)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어느 정도 필요하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18) (문17에서 3,4번 응답자에게만 질문)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 하나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 동물보호정책을 추진할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게 우선이다
2. 동물보호의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3. 동물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 특별히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4. 기타(적어 주십시오 ; _____)

문19) 동물의 타고난 본성에 최대한 가깝게 사육하는 농장에 대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하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생산물(고기, 계란, 우유 등)에 대해 동물복지표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1. 알고 있다
2. 모른다

1. 사지 앓을 것이다
2. 살 것이다

① 남 ② 여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청북도
⑪ 충청남도 ⑫ 전라북도 ⑬ 전라남도 ⑭ 경상북도 ⑮ 경상남도
⑯ 제주도

1. 일인세대(혼자 거주) 2. 1세대 세대(부부만 거주)

3. 2세대 세대(부모자녀 거주) 4. 3세대 세대(부모자녀손주 거주)

5. 기타()

- 70 -